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사회복지석사 학위논문

과중채무와 우울감의 관계

: 물질적 결핍의 역할을 중심으로

202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 회 복 지 학 과

임 예 원

과중채무와 우울감의 관계

: 물질적 결핍의 역할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박 정 민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임 예 원

임 예 원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8월

위 원 장 유 조 안 (인)

부위원장 한 윤 선 (인)

위 원 박 정 민 (인)

국문초록

과중채무와 우울감의 관계

: 물질적 결핍의 역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임예원

본 연구는 부채의 사용이 대중화된 흐름 속에서, '능력에 비해 과한 부채를 진 상태'를 뜻하는 과중채무 개념을 사용하여 과중채무가 개인의 우울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과정을 물질적 결핍이 매개하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과중채무가 '어떻게'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mechanism)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오늘날에는 개인이나 가구가 부채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화되었다. 가계부채의 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은 미디어를 통해 자주 접하였으나, 가계부채가 미시적인 수준에서 개인에게 심리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탐구는 충분히 시도되지 못했다. 부채가 실제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였는지에 대한 충분한 학술적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가계부채는 소득과 자산이 적은 계층, 구체적으로 근로빈곤층, 고령층, 영세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저소득 가구 등에게 삶을 잠식시키는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들은 부채로 인한 어려움에 노출된, 취약성을 지니는 집단이다. 본 연구는 부채가 개인에게 일시적으로 목돈을 제공하여 도움을 주는 듯하지만, 한편으로는 실패감과 낙인감을 통해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양날의 검'을 지녔다고 본다(Tay et al., 2017).

특히 부채의 하위개념인 '과중채무(over-indebtedness)'에 집중하였는데, 이는 '삶의 수준을 낮추어도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의무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Pearlin(1981)의 스트레스 과정 이론(Stress Process Model)을 적용하여 스트레서(Stressor)로서의 과중채무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과중채무라는 사건과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개인의 우울감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본 것이

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중채무는 우울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과중채무는 물질적 결핍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과중채무와 우울감 수준 간 관계에서 물질적 결핍 수준이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 14차 자료(2019년)를 활용하였다. 주요 변수에 결측치와 이상치가 없는 18세 이상 성인 가구주 6,059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과중채무가 물질적 결핍 수준을 매개로 우울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이 때 과중채무는 한국은행의 가계부실위험지수(HDRI: Household Default Risk Index)를 활용하여 부실위험가구 해당 가구와 비해당 가구를 구분하였다. 자료 분석은 OLS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물질적 결핍의 간접효과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ping)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중채무(부실위험가구)는 우울감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부실위험 해당가구가 부실위험 비해당 가구에 비해 우울감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 과중채무(부실위험가구)는 물질적 결핍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부실위험 해당가구가 부실위험 비해당 가구에 비해 물질적 결핍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셋째, 과중채무(부실위험가구)와 우울감 수준 사이에서 물질적 결핍이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달리 말하면, 과중채무와 우울감 수준 간 관계에서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이 관계를 물질적 결핍이 완전 매개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 과정 이론에 따라 삶의 사건(과중채무)이 야기한 경제적 부담(물질적 결핍)이 지속적인 긴장감(enduring strains)을 야기하고, 이것에 의해서 우울감이 높아진 것을 확인한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과중채무와 우울감 수준 사이의 관계에서 물질적 결핍은 우울을 야기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물질적 결핍' 개념이 포괄하고 있는 내용이다. 물질적 결핍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욕구 충족(basic needs)을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이 기초적인 욕구 미충족 경험으로 측정하고 있는 것은 '음식', '주거', '생활 필수재', '건강·의료' 영역이다. 달리 말하면, 우울 수준에 있어 단순히 채무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과중채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결핍을 경험하고 제약을 겪는 것이 우울감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는 나아가 물질적 결핍이 고용, 주거, 건강, 사회적 관계 차원에서 영향을 미쳐 우울감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물질적 결핍 수준이 과중채무와 우울감 수준 간의 관계를 매개할 때, 후속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물질적 결핍이 고용, 주거, 건강, 사회적 관계의 차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관계를 이중 매개모형을 구성하는 등의 후속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함의를 지닌다. 첫째, 부채로 인한 연구가 주로 국가부채, 기업부채를 중심으로 거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인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부채'라는 개념을 '과중채무'로 한정하고, 과중채무의 영향력을 개인의 내적 수준에서 살펴보았다는 차별성을 지닌다. 둘째, 과중채무가 우울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울감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어떠한 메커니즘(mechanism) 때문인지 '경로'를 이해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Pearlin et al.(1981)의 스트레스 과정 이론(Stress Process Model)을 적용하여,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으로서의 과중채무와 과중채무가 야기한 물질적 결핍을 강조하였다. 넷째, 1차 자료의 설문조사가 아닌, 2차 자료인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표본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한국복지패널 자료는 국내에서 수행 중인 가구단위 패널조사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 패널조사로 대표성을 띤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과중채무의 상위 개념인 부채를 사회경제적 지위에 반영해야 한다는 논의를 확장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과중채무는 가계의 실질적인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자산이나 소득에 관한 연구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며, 사회경제적 지위에 부채를 반영하는 것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더 세밀하고 적절하게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실척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사회복지의 새로운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금융복지'에 관심이 정책적, 실천적인 관점에서 증가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부채 사용 이전에 '부채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은 무엇이었는지, 부채 사용이 실질적이고 본질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복지실천의 초기 과정인 사정(assessment) 단계에서 채무에 대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지닌 대상자를 만나는 사회복지사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하는 상황과 요인에서 채무와 관련한 이슈는 없는지 금융 상황에 대한 민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셋째,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가장 일선에서 만나는 사회복지사의 금융 역량 강화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위기 파악이 용이해질 것이며, 복지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금융복지상담센터 인프라 확충이 필요

하며 금융복지상담사의 적극적 양성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취약계층부터 모든 개인에게 이르기까지의 건강한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과 이를 위한 도구(toolkit)가 필요하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실천 분야 이외에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사적, 공적 채무조정제도를 제공하는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같은 곳에서 물질적 결핍과 관련한 선별검사(screening)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을 위한 전반적인 사회의 금융의식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주요어: 가계부채, 과중채무, 물질적 결핍, 우울, 스트레스 과정 이론, 매개효과, 간접효과

학 번: 2019-24997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 1
제 2 절. 연구문제 및 연구의 개요 ·····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5
제 1 절. 스트레스 과정 이론 ····· 5
제 2 절. 과중채무 ····· 9
제 3 절. 물질적 결핍 ····· 13
제 4 절. 우울 ····· 16
제 5 절. 기존 가계부채 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 18

제 3 장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 20
제 1 절. 연구모형 ····· 20
제 2 절. 연구가설 ····· 21

제 4 장 연구방법 ····· 22
제 1 절. 분석자료와 연구대상 ····· 22
제 2 절. 변수의 구성 및 측정 ····· 24
제 3 절. 분석방법 ····· 31

제 5 장 연구결과 ····· 32

제 1 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32
제 2 절. 가설 검증 ····· 38

제 6 장 결론 ····· 47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 47
제 2 절. 연구의 함의 ····· 49
1. 이론적 함의 ····· 49
2. 정책적 함의 ····· 52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언 ····· 56

참고문헌 ····· 59
Abstract ····· 72

표 목 차

<표 1> 종속변수의 문항내용 ····· 24

<표 2> 독립변수의 측정내용 ····· 26

<표 3> 부채(총부채)의 세부항목 ····· 26

<표 4> 독립변수의 조작적 정의 ····· 26

<표 5> 매개변수의 문항 내용 ····· 27

<표 6> 변수의 종류 및 측정방법 ····· 30

<표 7> 주요 변수의 빈도분석 ····· 32

<표 8>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 33

<표 9> 가계부실위험가구 해당 여부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36

<표 10> 가계부실위험가구 해당 여부가 우울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 ····· 39

<표 11> 가계부실위험가구 해당 여부가 물질적 결핍 수준에 미치는 영향 41

<표 12> 가계부실위험가구 해당 여부와 물질적 결핍 수준이 우울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 ····· 43

<표 13> 가계부실위험가구 해당 여부가 우울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물질적 결핍의 간접효과 검증 통합모형 ····· 46

그 림 목 차

<그림 1> 스트레스 과정 이론 ····· 5

<그림 2> 연구모형 ····· 20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나 가구가 부채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보편화되었다. 거시적으로 가계부채의 총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관심과 연구에 비해 미시적인 수준에서 가계부채를 '누가' 사용하며, 부채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어떤 '출처'를 통해서 얻고 있으며, 개인과 가구의 효용으로는 '어떻게' 이어지는지, 어떤 집단이 부채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등에 대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가 적다. 그렇다면 부채의 사용은 가계와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을까? 효용(utility)을 증진하기 위해 부채를 사용한 개인들의 삶의 질은 개선되었을까? 개인은 주체성(agency)을 가지고 부채를 사용하고 있을까? 부채는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개인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기회를 생성하며,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까?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약 2천만 명에 달하는 임금근로자의 1인당 개인 평균 대출액은 처음으로 4천만 원을 초과하였으며(통계청, 2020), 부채증가율은 소득증가율을 지속적으로 높다(한국은행, 2020). 가계부채 증가의 이유는 복합적인데, 특히 주택 관련 부채와 신용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앞서는 사회에서 부채를 고려하지 않고는 가계의 경제적 자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 가계부채는 소득과 자산이 많은 계층이 주식, 부동산 마련을 위한 투자 등을 위해 사용하는 부채와 소득과 자산이 적은 계층이 생활비 혹은 사업자금을 위해 사용하는 부채로 나누어 볼 수 있다(조영무, 2015). 우리나라 가계의 취약차주 수는 2020년 4/4분기 말 6.4%를 차지하며, 이 중 다중채무·저소득자의 비중은 38.9%에 해당한다(한국은행, 2021). 사회초년생, 고령층, 영세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저소득가구 등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집단에게 가계부채는 이들의 삶을 잠식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요인이 되기도 한다. 취업난으로 인하여 직장을 구하지 못한 미취업청년들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유의자가 되고 있으며, '청년실업자'와 '신용불량자'를 합성한 '청년실신'이라는 단어의 유행은 우리 사회의 씁쓸한 단면을 보여준다. 또한, 빈곤률이 높은 60대 이상 집단은 2017년부터 2019년 3/4분기까지 연평균 9.9%의 대출증가율을 보였고, 이는 40대의 3.3%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다(한국은행, 2020).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가계부채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개인회생', '채무상환', '학자금', '개인파산', '재테크'였다(박정민 & 송태민, 2020). 채

무상환,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같은 단어는 부채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으로 제약을 겪는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 된다.

신용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고, 대출 관련 금융서비스가 증가하면서 과도한 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부채의 하위개념인 과중채무에 집중하였다. 부채(채무) 자체보다는 '과중채무'가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이는 과중채무(over-indebtedness)의 개념이 '개인의 능력에 비해 부채를 과하게 소유한 것'이기 때문이다(Betti et al., 2007). 과중채무의 개념 및 측정방법에 대하여 국가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지만 대체로 '과중채무'란 삶의 수준(living standards)을 낮추어도 부채를 상환해야하는 의무(obligations)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에는 의견이 일치한다(Haas, 2006; European Union, 2008; 노대명 외, 2017). 과중채무는 부정적인 삶의 사건(events)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지출의 증가 또는 소득의 감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Perry et al., 2014; Keese, 2009; Warren et al., 2005; Domowitz & Sartian, 1999; Sullivan et al., 2001; European Commision, 2009). 경제학에서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바탕으로 부채의 사용을 설명해왔지만, 사실 현실에서 여러 개인은 통제하기 어려운 사건과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과도한 부채를 상환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부채를 감수하는 것이 본인 혹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의미의 '합리적 선택'이 되고 있는 것이다(노대명 외, 2017 재인용).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과도한 부채를 갖게 된 개인은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까? 과중채무를 지닌 개인은 부채와 이자가 과도해지면 주체적으로 부채를 관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 개인이 재정적인 위기로 인해 삶의 여러 의사결정에서 제약을 겪게 되면, 개인의 삶의 만족도는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Gathergood, 2000). 개인이 부채를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 오는 각종 불이익(penalty)은 부채의 발생 원인과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개인이 마땅히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여겨지며, 이는 개인에게 내재화되어 낙인감, 수치심(shame)을 느끼게 한다. 부채에 대한 '개인의 책임감(personal responsibility)'과 부채를 관리하지 못했다는 '실패(failure)'가 개인에게 고스란히 내재화되어 개인의 건강과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Sweet, 2018; Hayes, 2011; Harrison et al., 2015). 본 연구는 부채가 개인에게 일시적으로 목돈을 제공하여 도움을 주는 듯하지만, 한편으로는 실패감과 낙인감을 통해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양날의 검'을 지녔다고 본다(Tay et al., 2017; Hayes, 2000). 따라서, 본 연구는 '과중채무가 우울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개인의 정신건강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우울 수준에 관심을 기울인 것이다.

한편, 현재까지 과중채무가 정신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과정(mechanism)에 대해서는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선행연구는 부채가 개인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는데, 부채가 개인의 관계적 측면, 재무스트레스, 부부갈등,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존재하나, 부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과정(mechanism)을 살펴본 연구는 부재하다(박정민 외, 2017; 김성숙, 2011; 유소이 & 박주영, 2014; 양은모 & 배호중, 2020; Jenkins et al., 2008; Brown et al., 2005, Drentea, 2000; Reading, 2001; Hayes, 2011).

이 과정을 이해하고자 본 연구는 Pearlin(1981)의 스트레스 과정 이론을 활용하여 '스트레서(Stressor)'로 과중채무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과중채무라는 사건과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개인의 우울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본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은 물질적 결핍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는데, 과중채무로 인해 '물질적 결핍' 상황을 지속적으로 마주하면, 우울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연구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과중채무'의 상황이 개인의 우울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과중채무가 우울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어서 그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과중채무와 우울감 사이에서 물질적 결핍 수준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본다. 과중채무와 관련된 물질적 결핍 수준이 우울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물질적 결핍 수준은 과중채무와 우울 수준을 매개하는 요인이라고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9년 한국복지패널 14차 자료를 활용하여 과중채무가 물질적 결핍 수준을 매개하여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과중채무로 인해 자살 혹은 일가족 자살을 하는 경우가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곤 하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 자살률에 있어서 경제위기의 영향이 더 민감하다는 점에서(이윤정 & 송인한, 2015),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하여 과중채무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소득 계층을 막론하고 전 계층에서 과중채무의 영향을 살피고자 하는데, 이는 금융자산에 비해 부채가 과도하게 많은 가구가 전 소득계층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사실을 반영하기 위함이다(유경원, 2009). 한국 사회에서 다수의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영향력을 미시적인 수준에서 살펴봄으로써 과중채무가 개인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그 과정을 이해하여 개인 수준에서 부채의 영향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 2 절 연구문제 및 연구의 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과중채무가 개인의 우울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그 과정을 물질적 결핍 수준이 매개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과중채무는 우울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 과중채무는 물질적 결핍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3] 과중채무와 우울감 수준 간 관계에서 물질적 결핍 수준이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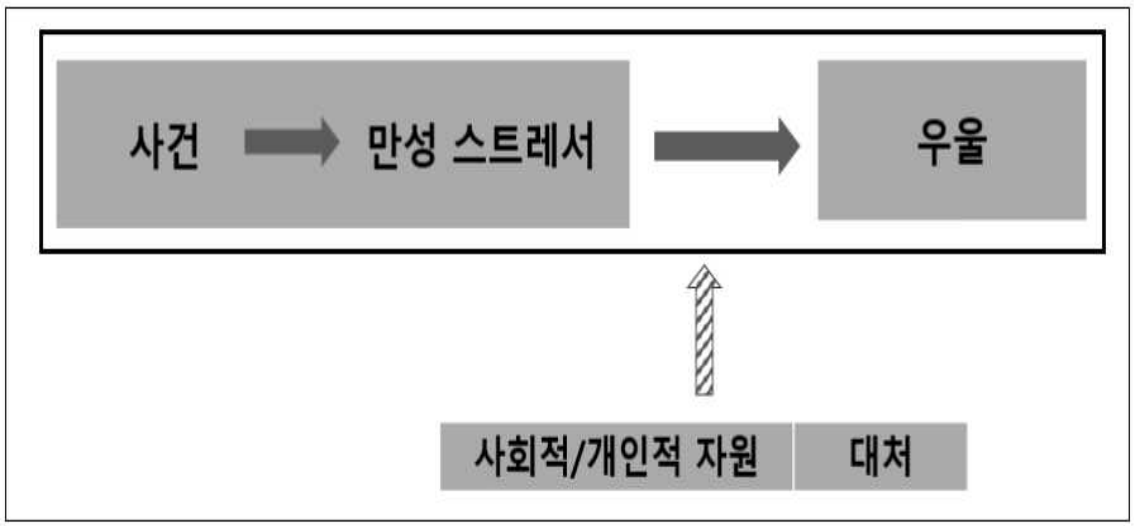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어지는 제2장 제1절에서는 본 연구의 개념 틀로 사용하는 스트레스 과정 이론을 기술한다. 2절에서는 채무의 특성과 과중채무의 개념을 살펴본다. 3절과 4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물질적 결핍과 우울감에 대하여 기술한다. 앞서 검토한 개념을 바탕으로 5절에서는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차별성을 소개한다. 다음 제3장에서는 연구모형과 연구문제를 소개하고, 제4장에서는 분석을 사용한 자료와 연구대상을 설명한다. 그리고 자료 분석을 위한 주요 변수들의 측정 방법과 분석을 위한 통계 방법을 기술하였다. 제5장에서는 자료 분석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연구 결과의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포함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스트레스 과정 이론

본 연구는 Pearlin et al.(1981)의 스트레스 과정 이론(Stress Process Model)을 분석 틀로 하여 과중채무와 우울의 관계를 설명하고, 과중채무와 우울의 관계에서 물질적 결핍의 매개효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스트레스 과정 이론은 스트레스를 단일한 사건(event)이 아닌, 스트레스가 촉발되고 진행, 지속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스트레스가 우울이나 좌절감 등과 같은 정신건강의 영역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초점을 기울이고 있으며(Pearlin, 1989), 현재까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들을 확인하는데 큰 기여를 해 왔다(Turner, 2010).

스트레스 과정 이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트레스 발생요인(Stressor)'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사건이나 상황을 마주하는 것이다(Aneshenel, 1992; Pearlin 1983). 스트레스 과정 이론은 개인이 처한 사회와 문화라는 배경 속에서, '스트레스의 발생요인(Sources of stress)', '스트레스의 매개(mediators of stress)', '스트레스의 발현(manifestations of stress)'이라는 세 가지 주요 영역의 결합으로 진행된다고 보았다(Pearlin, 1981). 해당 이론의 구조는 다음의 [그림 1]과 같고, 본 연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하단의 사건, 만성 스트레스, 우울로 이어지는 영역이다.



<그림 1> 스트레스 과정 이론

이 이론은 스트레스를 개별적으로 보기보다는 스트레스 간의 복잡한 연결성을 전체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며, 본 연구에서 개인적인 수준에서 과중채무라는 스트레스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우울에 이르게 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적합한 모델이라고 보았다. 본 절에서는 이 모델을 본 연구에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1) 스트레스의 기원(Sources of Stress): 과중채무

스트레스 과정 이론은 개인이 사건을 경험(eventful experience)하는 것과 만성적인 긴장이 존재(chronic strains)하는 두 가지 상황의 결합이 스트레스를 발생시킨다고 보았다(Pearlin et al., 1981). 첫 번째로, 개인의 삶에서 '사건(events)'은 개인이 유지하고자 하는 항상성(homeostasis)을 위협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과정 이론은 개인은 자연스럽게 균형(equlibrium)을 유지하고자 하여 변화(change)를 참을 수 없어한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개인이 항상성을 유지하고자 재적응(readjustment)하는 과정은 지치고 힘든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개인은 스트레스와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결과에 현저하게 취약해진다고 보았다. 물론 개인의 사회적, 생물학적 삶에서 변화란 본질적으로 일부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과정이론은 모든 변화가 아닌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했으며 사건의 수뿐만 아니라 사건이 유발하는 변화의 강도(magnitude)와 사건의 질(quality)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였다(Pearlin, 2005).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경험한 '사건(events)'을 과중채무로 상정하였다.

두 번째로, 스트레스 과정 이론은 '사건'으로 촉발된 '만성적인 스트레서(chronic stressors)'를 강조하였다. 만성적인 스트레서가 어떻게 우울을 촉발시키는지에 대하여서는 Brown and Harris(1978)의 예시를 통하여 설명한다. 그들은 삶의 사건(life events)들이 인생의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이해를 하도록 초점을 기울이게 한다고 설명한다. 사건(life events)들은 개인의 삶에서 끊임없이 지속되는 긴장요소(strains)들을 부정적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건들은 새로운 긴장을 일으키고, 원래 존재하고 있는 긴장을 강화시켜 결국에는 새롭고, 강화된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다. 해당 이론은 '만성적인 스트레서(chronic stressors)'로 역할부담(role strains)을 보았으며, 스트레스 과정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영역으로 구체적으로 경제적 부담(economic strain)을 대표적인 예시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과중채무(삶의 사건)가 야기한 역할 부담(경제적 부담)은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수준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과중채무 자체가 1차적으로 스트레스를 만들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개인은 단순히 사건 자체에 의해서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야기한

‘지속적인 긴장감(enduring strains)’에 의해서 우울해지는 것이 분명하다고 본 것이다.

해당 이론은 ‘지속적인 긴장감’을 대표적으로 ‘경제적 부담(economic strain)’이라고 보았는데, 이는 ‘음식, 옷, 주거, 의료와 같은 삶의 필수적인 것들을 얻는데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항목에 대한 것’을 뜻한다. 개인의 삶에서 실제적인 물질적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인 것이다. 본 연구는 해당 이론의 ‘경제적 부담’을 ‘물질적 결핍’ 개념을 사용하여 반영하고자 하였다. 물질적 결핍은 삶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험’을 뜻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뒷 절에서 후술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개인이 처한 사회와 문화에서, 불운한 생애경험으로 인해 발생한 ‘과중채무’를 ‘삶의 사건’으로 보고, 과중채무가 야기한 ‘만성적인 스트레서’, 곧 ‘경제적 부담’을 물질적 결핍으로 상정하였다. 그리고 과중채무 자체가 우울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물질적 결핍을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2) 스트레스의 매개(mediating resources)

개인은 스트레스 상황을 직면할 때에,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거나 혹은 그들 자신의 행동, 인지, 인식 등을 변화시켜 대처하고자 한다. 스트레스 과정 이론은 이것들을 자원(resources)과 대처(coping)로 보았다. 자원에는 사회적 지지와 같은 사회적 자원(social resources)과 자존감(self-esteem), 통제력(mastery)과 같은 개인적 자원(personal resources)이 있다고 보았다. 해당 이론은 스트레서(stressor; 삶의 사건들과 만성적인 스트레서를 종합적으로 칭함)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자원이 조절한다고 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이론에서 말하는 자원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

(3) 스트레스의 발현(manifestations of stress): 우울

스트레스 과정 이론은 스트레스의 지표로 우울을 상정하였으며, 우울의 측정은 응답자들의 자기 보고(self-reports)를 기반으로 하였다. 해당 이론은 스트레스의 ‘실제’ 발현(manifestations)을 무엇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의견 불일치와 혼란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며, 개인이 스트레스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유해한 것으로 경험하는 상태에서 유기체(organism)의 반응에 대한 일반적인 동의(general agreement)에 집중하였다(Aneshensel, 2015). 스트레스의 지표 중에서 우울 수준이 사회적, 경제적 선행요소(antecedents)와 관련된 연구에 적합하다고 본 것이다. 소득, 성별, 결혼 상태와 같은 상태에서 개인이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개인의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상술한 스트레스 과정 이론의 틀을 사용하고자 한다. 개인적, 사회적 자원과 같은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stress-buffering) 기능을 하는 자원에 대하여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스트레스가 우울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건이 야기한 만성적인 스트레스, 이로 인한 우울 수준에 관심을 기울인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사건(events)'은 '과중채무'이며, 과중채무가 야기한 '만성적인 스트레스(chronic stressors)'는 경제적 부담, 즉 '물질적 결핍'이다. 다음 2-4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과중채무, 물질적 결핍, 우울의 개념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과중채무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위 개념인 '채무' 즉, 부채의 속성을 이해하고, 부채와 관련한 경험적 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제 2 절 과중채무

인간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원, 사회적 자원, 관계적 자원 등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중에서 경제적 자원은 가장 기초적인 자원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의, 식, 주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자원 없이는 인간의 삶의 유지가 불가능하다. 부채는 고대 사회에서부터 존재하였는데, 현대사회가 발전하고 돈의 흐름을 뜻하는 금융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일종의 자원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부채(debt)는 미래의 특정 날짜 또는 특정 기간까지 대출자에게 이자 또는 원금을 상환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책임(liabilities)으로 정의된다(OECD, 2014).

부채는 가치중립적인 재화여서 부채를 사용하고 어떻게 상환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으로 기능하거나 부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Tay et al., 2016). 부채는 교육을 위한 학자금, 주거를 위한 주택자금과 같은 필수적인 삶의 조건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자본을 증식시키기 위한 자원으로도 사용된다. 개인이 부채를 활용하여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 부채는 자원이 되고 삶의 기회를 창출하며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부채를 지니고 있다는 표현은 그다지 긍정적인 의미로 통용되지 않는다. 이는 부채가 다수의 사람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을 뜻하는데, 본 연구는 부채의 영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채의 존재 자체보다 개인의 상환 능력에 비한 부채의 상대적인 양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의 확장이 필요한 이유는 부채의 절대적 양에 따라 개인의 부담감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부채부담 수준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인을 부채부담 수준이 높은 개인으로 보았으며, 과중채무를 보유한 개인이라고 보았다. 부채를 보유한 개인을 살펴보는 것보다는 과중채무를 보유한 개인을 살펴보는 것이 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부채를 개인의 상환 가능성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은 정부나 금융기관에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부채부담을 파악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학술적으로 과중채무의 개념 및 측정방법은 다양한데, 과중채무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각국 정부는 공통으로 '소득에 비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는데(노대명 외, 2017), 예를 들어 독일은 '생활수준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상환의 의무를 다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으며, 프랑스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개인이 빚을 갚아

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고 있다. 과중채무 가구를 부채로 인한 상환을 제외하면 빈곤선(poverty line) 아래에 있는 가구를 지칭하고 있으며, EU의 여러 국가는 공통적으로 부채액이라는 경제적 차원, 단기·중기·장기의 시간적 차원, 부채 상환 이전에 충족되어야 하는 사회적 차원, 과중채무가 야기하는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차원을 고려해 과중채무를 정의하고 있다(D'Alessio & Lezzi, 2013).

이처럼 과중채무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개인이 부채를 상환하기에는 과한 상태라는 공통적인 동의는 있지만, 현재까지 과중채무의 개념은 한 가지의 지표로 객관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기존에 과중채무를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 지표에는 총부채액(absolute amount of debt), DTI(Debt to Income Ratio), DSR(Debt to Service Ratio), DTA(Debt to Asset Ratio), 가계부실 위험지수(HDRI: Household Default Risk Index), 주관적 부채부담지수 등이 있다. 먼저, '총부채액'의 경우, 가계부채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계부채 총금액을 독립변수로 사용하는 것이다(이윤정 & 송인한, 2015; 맹성준, 2019). 하지만 가계부채 수준을 단순히 부채액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부채가 가구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같은 부채액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소득 혹은 자산 수준에 따라서 부채부담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소득도 낮고 자산도 적은 경우에 비하여 소득은 낮지만 자산이 많은 경우, 부채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서 자산이 완충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수의 해외 연구는 부채의 총액을 고려하되, 소득과 자산을 추가로 고려하는 지표들을 사용하고 있다(Archuleta et al., 2013; Han & Hong, 2011; Lange & Byrd, 1998; Morra et al., 2008).

소득을 고려하는 지표로는 DTI(Debt to Income Ratio: 총부채상환비율)와 DSR(Debt to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지표가 있는데, DTI는 소득 대비 부채의 비율을 뜻한다. 이는 같은 양의 부채가 있을 지라도, 개인이 일정하게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서 부채의 부담 정도가 달라질 것을 고려한 지표다(Keese, 2012; 유소이 & 박주영, 2014). 한편,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원리금) 비율을 뜻한다. DTI와 DSR의 개념은 상이한 측면이 있으며 부채의 원금과 매달 상환해야 하는 이자를 고려하는 DSR 개념이 통상적으로 더 많이 사용된다(통계청, 2020). 실제로 정부는 개인의 상환 능력에 맞춘 가계부채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따라 시중 은행에서는 DSR 개념을 사용하여 개인의 연소득 대비 상환해야 하는 대출 원금과 이자 비율을 규정하여 두고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학술적으로 양은모 & 배호중(2020)은 주택 관련 대출 상환액과 부채에 따른 이자비용의 값을 소득으로 나누어 부채부담을 측정하고, 일정 비율(20%, 30%, 40% 등)을 넘는 가구를 '주택마련을 위해 과도한 부채를 가진 가구'로 정의하였다.

상술한 DTI, DSR이 소득을 고려하고 있는 한편, 자산을 고려하는 DTA(Debt to

Asset Ratio: 자산대비부채비율) 지표도 존재한다. 자산이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 무형의 재화나 권리이며 일반적으로 재산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부채부담을 측정하기 위해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사용한다는 것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의 수준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DTA지표를 활용하여 박신아 외(2020)는 100%가 넘는 가구를 '과부담 부채보유가구'로 보았고, 이세미 & 이지연(2016)도 DTA 개념을 활용하여 '부채부담'을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가계부실위험지수(HDRI; Household Default Risk Index)는 한국은행이 DTI, DSR, DTA와 같은 기존 지표들의 한계를 보완하고, 과중채무로 인해 위기에 처한 '부실위험가구'라는 개념의 정의에 부합하는 판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한 지표다(한국은행, 2015). 부실위험가구(over-indebtedness households)는 과중채무 가구와 동의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현재 보유 부채 규모가 소득 및 자산 가치를 초과하여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거나, 2) 부채 상환이 가능하더라도 상환비용이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지속적으로 소비가 기본적인 생활수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의미한다(Betti et al., 2001). 이와 같은 과중채무 가구의 정의는 '일정 시점'에서 측정되는 '저량(stock)'이라는 개념과 '일정 기간' 동안 측정되는 '유량(flow)'의 개념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한국은행, 2015). 달리 말하면, 일정 '시점'에 측정된 부채와 자산의 규모를 비교하여 부채를 갚지 못할 가능성을 평가하고,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측정된 소득과 이자 비용의 비교를 통해 부채를 갚지 못할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채 상환으로 인한 개인이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의 위축 정도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가계부실위험지수는 종합적인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일정 '시점' 즉, 저량을 고려하는 자산대비부채비율 DTA(Debt to Asset Ratio: 총부채/자산평가액)과 일정 '기간' 즉, 유량을 고려하는 원리금상환비율 DSR(Debt Service Ratio: 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을 결합하여 산정되었다. 가계부실위험지수는 DTA와 DSR 각각의 임계치가 100%, 40%를 동시에 넘을 때 '부실위험가구'로 판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DTA, DSR과 같은 지표가 결합된 가계부실위험지수가 과중채무를 정의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표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다수의 연구는 과중채무를 정의하기 위해 객관적인 지표 이외에 주관적인 지표를 활용하기도 한다. 과중채무에 대하여 '부채에 대하여 얼마나 걱정하는지', '부채에 대하여 얼마나 자주 걱정하는지' 등을 설문 조사 하고, 직접 보고(self-report)된 자료를 사용한다. 이러한 질문들은 부채 스트레스(Debt stress), 부채에 대한 태도(Attitudes towards debt), 재정 스트레스(Financial stress), 재정 긴장(Financial strain), 재무스트레스(Financial stress) 등의 개념으로 측정된다(Voydanoff, 1984; 김성숙, 2016; Krause et al., 1991; Cooke et al., 2004; Drentea, 2000; Oksanen et

al., 2015). 또한, 채무자의 지위(Loan status)에 놓여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혹은 지난 6개월간의 부채 보유 여부를 조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과중채무를 측정하는 등의 방법도 존재한다(Kaufman, 2015; Mathias et al., 2015).

본 연구는 과중채무를 측정하기 위해 가계부실위험지수(HDRI) 지표를 사용한다. 가계의 소득 흐름과 금융 및 실물 자산을 고려하여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측정하고, 가계부채의 부실위험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행이 가구의 원리금상환비율(DSR), 부채/자산비율(DTA)를 결합하여 산정하여 가장 공신력 있고 완성도가 높은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가계부실위험지수는 100을 초과하는 가구를 '위험가구'로 분류하는데, 본 연구도 이를 차용하여 100을 초과하는 가구를 '부실위험가구 해당가구', 100을 초과하지 않는 가구를 '부실위험가구 비해당가구'로 구분하였다.

제 3 절 물질적 결핍

본 연구는 과중채무로 인해 야기된 물질적 결핍이 개인의 내적인 영역, 구체적으로 우울 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았다. 본 절에서는 물질적 결핍의 정의와 개념을 살피고자 한다.

물질적 결핍(material hardship)이란 물질적 궁핍, 물질적 어려움으로 일컬어지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이 최소한의 소비생활에 제약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Beverly, 2000). 구체적으로 개인이 생활 여건상에서 경험하는 '물질적 결핍'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음식, 주거, 전기·수도·가스 등 생활 필수재, 건강·의료)에서 기본적인 욕구 충족(basic needs)을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물질적 결핍 개념은 개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고 밀접한 삶의 여건을 측정하고 있어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앞 절의 스트레스 과정 이론을 적용하면 불운한 생애사로 인해 가지게 된 과중채무는 개인의 삶의 사건(events)이다. 과중채무는 부채의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인해 경제적 긴장(economic strain)을 일으킨다. 이러한 '경제적 긴장'은 짧은 기간 동안 발생하는 '급성(acute)' 스트레서가 아니라, '만성적인(chronic)'인 스트레서다. 과중채무로 인한 경제적 긴장이 해소되기까지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한, 일상생활에 밀접한 '음식, 주거, 전기·수도·가스'등과 같은 것을 구매하지 못하는 경제적 제약은 반복적으로 경험되는 스트레서(stressor)고, 개인의 부정적인 과중채무 사건을 상기시키는 일련의 사소한 삶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반복적이고 지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경제적 제약은 우울 수준을 촉발할 가능성을 높인다(Yin et al., 2005; Brown & Harris, 1978).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인 제약(economic strain)을 물질적 결핍(material hardship) 개념으로 보았는데, 객관적인 경제적 제약은 구체적으로 삶의 필수품을 구하는 데에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치환하여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 절의 Pearlin(1981)의 스트레스 과정 이론 연구에서도 경제적 긴장(economic strain) 개념을 본 연구가 정의하는 물질적 결핍의 경험 정도로 대체하여 측정한 것을 참고하였다.

전통적으로 빈곤 측정에 사용되었던 소득 기반(income-based)의 빈곤 측정은 소득을 가계 자원의 핵심으로 본다. 소득 기반 측정은 가계가 필요로 하는 자원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가계의 능력을 측정하는데(Ouellette, 2004), 가계의 자원과 웰빙(well-being)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소득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가계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지'를 적절하게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제시되어 왔다(Mayer & Jenks, 1989). 왜냐하면 가계의 생활조건은 현재의 소득 이외에도 재산,

부채, 신용에 대한 접근을 사용하여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Ringen, 1988). 가계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재산, 부채, 신용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현재 소득만을 바탕으로 가계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파악하는 것은 가계의 생활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물질적 결핍은 소득 빈곤 개념에 대안으로 제시된 개념으로, 사회구성원의 경제적 수준(economic well-being) 혹은 경제적 어려움(economic hardship)을 하나의 지표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우며, 기존 빈곤 측정이 실제 생활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이상록, 2011). 물질적 결핍 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자원의 가용성'보다는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는 사회적 조건이나 증상'에 주목하는 것으로(탁장한 & 박정민, 2016 재인용), 개인과 가계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을 객관적으로 적절히 파악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도 기존의 소득 기반의 측정이 아니라 물질적 결핍 수준에 대한 측정을 통해 가계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한편, 물질적 결핍은 희망의 부재, 우울, 적대감 등의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ronke, 2008). 물질적 결핍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물질적 결핍을 경험한 집단의 정신건강은 양호하지 못하다고 밝혀졌다(이순아 & 이상록, 2016). 소득 빈곤은 물질적 결핍을 매개하여 우울 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소득 빈곤이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물질적 결핍을 상당 부분 기초한 것으로 파악된다(Helfin & Iceland, 2009; 이상록, 2011). 나아가 소득 수준보다는 물질적 결핍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밝혀졌다(Ahnquist & Wamala, 2011).

물질적 결핍은 필수적인 삶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써 개인의 내적인 영역, 구체적으로 통제감(mastery)과 자존감(self-esteem)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리고 개인이 경제적 자원을 통제할 수 없다는 통제감의 약화, 경제적 자원을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기비판과 자기공격으로 인한 자존감의 결여는 우울로 이어지는 원인이 된다(Pearlin, 1983; Gilbert & Irons, 2005; Mirowsky & Catherine, 1986). 실제로 물질적 결핍은 모든 연령대에서 우울 수준을 높이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여유진, 2020).

물질적 결핍은 기본적인 욕구(basic needs)의 불충족 상태, 물질적 결핍의 경험에 대한 측정을 토대로 빈곤 상태를 직접적으로 판별한다. 빈곤층이 경험하는 기초생활 유지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한다는 점에서 물질적 결핍 개념은 의의를 지닌다(Beverly, 2000). 이와 관련하여 박정민 & 이승호(2017)는 부채와 기본적 욕구의 결핍과의 관계를 생계, 건강, 주거 차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부채가 생계와 주거와 같은 기본적 욕구의 결핍 수준과 밀접한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

구는 물질적 결핍 개념이 부채와 상관이 있을 것이며, 기초생활 유지의 어려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개념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물질적 결핍 개념을 측정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한국복지패널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자료는 물질적 결핍에 대해 과거 1년 동안 음식(food), 주거(housing), 전기·수도·가스 등 생활 필수재(utilities), 건강·의료(medical care)등의 영역에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경험을 측정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상 4개 영역의 물질적 결핍의 내용들은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기본 욕구이므로 물질적 결핍을 적절히 측정한다고 판단하였다.

과중채무 보유로 인해 개인이 소비지출을 줄이고, 줄어든 생활비로 인하여 기본적인 생필품 구매를 줄여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물질적 결핍 상황에 처하면 내적인 통제감과 자존감에 부정적 영향을 받아 우울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과중채무와 우울감의 관계에 있어서 과중채무로 인해 발생한 물질적 결핍은 우울감을 상승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우울 개념을 살펴볼 것이다.

제 4 절 우울

과중채무는 개인의 우울감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다수의 연구는 부채가 부정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다(Adams & Moore, 2007; Archuleta et al., 2013; Belle et al., 2014; Creed et al., 2014; Drentea, 2000; Drentea & Reynolds, 2012, Bridges & Disney, 2010).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정서 중에서도 '우울'에 집중한다. 본 절에서는 우울의 개념을 살펴보고,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개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을 택하여 부채와 우울의 관계를 탐구한 선행연구도 살펴본다.

우울(depression)은 부정적인 정서이며, '일시적으로 기분만 저하된 상태가 아니라 생각의 내용, 사고과정,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의미한다(이웅, 임란 2014, 재인용). 우울은 긍정적인 정서 체계의 하향 조절(down-regulation)로 알려져 있다(Gilbert, 2006). 역사적으로 우울증이 질병으로 구분되고 진단되기 시작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울증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울은 감정에 관련된 정신장애를 뜻하는 정동장애(affective disorder)로 가장 많은 사람이 고통 받는 정신장애이며, 가장 유병률이 높은 장애이기 때문이다(권석만, 2013).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가 발간 및 개정하고 있는 『Diagnostic and Statistics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의 5판에 따르면, 우울증을 진단하는데 활용되는 진단 기준으로는 '거의 매일 흥미나 즐거움의 뚜렷한 저하, 불면이나 과다수면, 피로나 활력의 상실, 무가치함 또는 죄책감,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등이 있다. 우울 관련 주요 증상이 2주 이상 거의 매일 발견되면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게 되는데, 경증 우울이 중증 우울로 발전하면 자살사고와 자살시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강상경, 2010; Hunt et al, 2006).

우울은 사회적, 개인적, 생물학적, 유전적 요인에 의해 다양하게 영향을 받는데,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강상경 & 권태연, 2008; 김수린, 2017).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심리사회학적(social psychology) 관점을 택하고 있는데, 이는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인 중에서 개인이 처한 사회경제적인 상황과 객관적인 지위를 강조하는 관점이다. 본 연구는 개인의 사회경제적인 상황을 과중채무를 보유한 상황으로 이해하고, 스트레스 과정 이론을 적용하여 과중채무가 우울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을 택하여 부채가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존재하는데, 김시월 외(2015)는 부채가 노인 소비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으며 가계부채가 경제문제뿐 아니라 심리적인 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주었다. 주택을 보유한 가계 중 주택담보부채가 있는 가계의 가구원 중 노인 소비자의 우울 수준을 알아보았는데, 가계총부채가 적을수록, 부채상환비율(DTI)가 높을수록 노인의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민 외(2017)는 가계부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우울감과 자살생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소득계층에 따라 가계부채 수준과 우울감 및 자살생각의 관계가 상이함을 보여주었다.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우울감의 위험을 상당히 높이고 있었는데,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액 비율이 400%를 넘는 경우 그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보다 우울감의 위험이 1.5배 높았고,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상환액이 30%를 넘는 경우 10% 미만일 때보다 우울감의 위험은 1.66배 증가하였다. 해당 연구는 횡단분석과 종단분석을 통해 높은 가계 부채 수준이 우울감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인과관계 또한 성립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Berger et al.(2016)은 부채가 미국 성인들의 상당한 우울 증상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으며, 특히 단기(short-term)부채와 무담보(unsecurd) 부채가 유의미하게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부채가 우울을 야기하는지, 우울이 부채를 야기하는지에 대한 역인과관계를 고려하였으며, 부채가 우울을 야기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처럼 사회경제적 어려움인 과중채무는 우울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Readings & Reynolds(2001)은 사회경제적 어려움 중에서 부채가 여성의 우울 수준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보았다. 과중채무가 우울을 시작(onset)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는데(worsening) 영향을 끼친다고 본 것이다. 심리적, 재정적 웰빙은 가계마다 재정적인 환경(financial circumstances)을 인식하는 수준에 따라 달라지고(Gathergood, 2000), 개인이 사회적 비교를 통해 경험한 절대적, 상대적 결핍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 좌절, 수치심은 우울 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Kondo et al., 2008). 이는 과중채무가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인식(perceptions)과 걱정(worry)이 과중채무와 우울감을 연결하는 핵심 기제(a key mechanism)가 될 수 있음이 강조된 것이다(Sweet et al., 2013).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식과 걱정에 대한 측정을 통해 과중채무의 영향을 파악하기보다는, 물질적 결핍 수준이라는 객관적인 척도를 통해 과중채무의 영향력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된 과중채무가 객관적인 물질적 결핍 수준의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과중채무 상황은 객관적인 물질적 결핍 수준을 거쳐서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물질적 결핍 수준이 사회경제적 상황인 과중채무와 개인의 내적인 우울감 수준을 연결하는 핵심에 있다고 보았다.

제 5 절 기존 가계부채 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과중채무와 상위 개념인 부채와 관련한 기존의 국내외 연구들은 부채의 속성으로 용도와 형태를 고려하였으며 부채가 소비, 가족 관계, 정신 건강 등 여러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었다. 부채로 인해 취약한 계층이 특히 불우한 가구(disadvantaged households)라는 것에 주목하였으며(Sullivan, 2012; Chiteji, 2007), 부채를 불평등과 관련하여 살펴봄으로써 사회경제적 지위 중 일부로 반영해야한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먼저, 국외연구들은 주로 신용카드 부채액, 학자금 대출 부채액, 자동차 구입 부채, 주택 구입 부채, 의료비 부채 등을 따로 분석함으로써 각 부채 용도별 특성과 부정적 영향력을 더욱 명확히 밝혀냈다(Adams & Moore, 2007; Bell et al., 2014; Dew & Yorgason, 2010; Hogan et al., 2013; Grable & Joo; West et al., 2011; Zhang & Kemp, 2009, Sharma et al., 2018). 국내에서는 주택 관련 부채가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지만 근로빈곤층의 생계형부채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의미의 합리적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박탈에 이르게 하는 위험 요소임이 밝혀졌다(이세미 & 이지연, 2016; 노대명 외, 2017 재인용).

또한, 과중채무는 소비생활에서의 어려움에 이르게 한다. 적절한 소비를 할 수 없는 개인은 소비를 줄여 박탈에 이르거나, 부채를 사용하여 적정한 양의 소비를 유지하고자 한다(김아영 & 최현자, 2006; Sullivan, 2012). 실제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증가는 소비를 증가시키지만 특정 임계점, 구체적으로 1.9~2.4배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소비를 제약시키고 있었는데(손종칠 & 최영주, 2015), 이는 특정 임계점(critical point)을 넘은 부채의 사용은 부채 상환액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과중채무는 가족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Conger et al., 1994; Readings & Reynolds, 2001; 맹성준 & 한창근, 2019). 부채는 부부 관계에서 갈등을 야기하거나 부부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부부폭력, 가정 폭력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 확인되었다(Dew, 2008; 이세미 & 이지면, 2016; 박정민 외, 2017; 손지영& 박주영, 2017). 실제로 과중채무자들은 이혼과 별거 비율이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다(탁장한 & 박정민, 2016). 나아가 과중채무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자녀의 정서적, 인지적, 신체적 웰빙(well-being)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Conger & Donnellan, 2007).

과중채무를 보유하는 것은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요인이 되는데, 경제적 어려움은 일상에서 연쇄적으로 기본적인 욕구의 결핍과 우울감 수준에 영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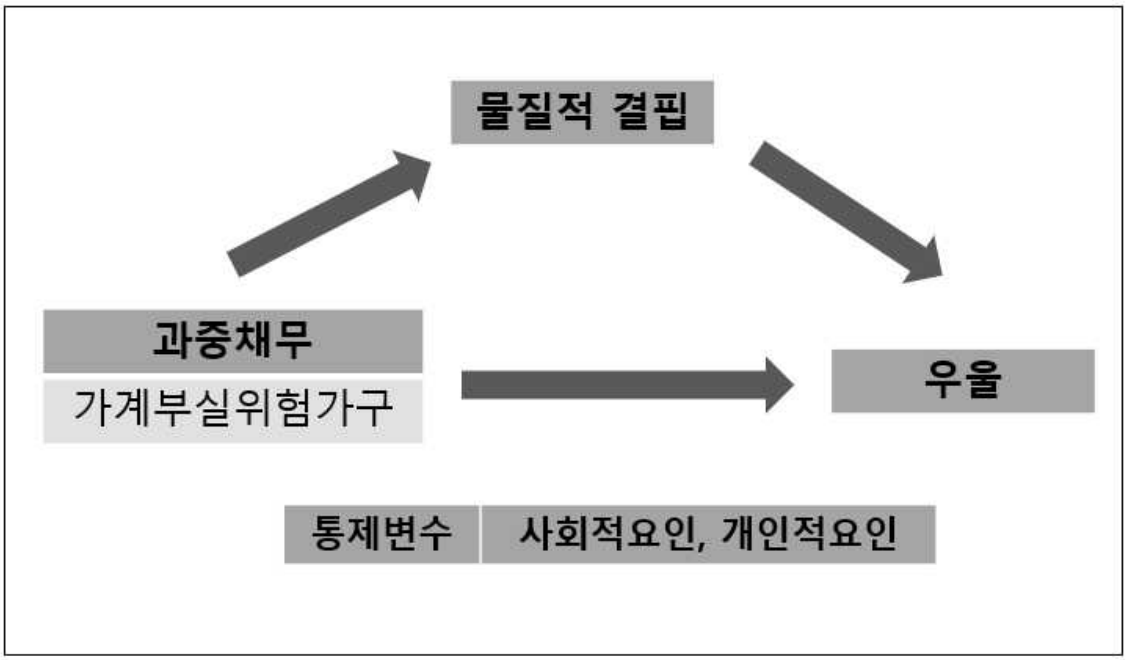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Bridges & Disney, 2010; 박정민 외, 2014; 김시월 외, 2015; Berger et al., 2016; 김성훈 & 우명숙, 2019; Walsemann et al., 2015). 심지어 과중채무로 인한 부채 상환의 어려움이 장기화될 경우 자살을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이윤정 & 송인한, 2018),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사람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이었다(통계청, 2018). 구체적으로 부채의 종류 중에서도 단기(short-term) 부채와 무담보(unsecured) 부채가 성인의 우울과 관련이 있고, 부채를 소유한 여성의 자살 생각 가능성이 더 높으며, 저소득 개인이 신경증, 알코올 중독과 같은 정신장애로 이르는 길에서 부채는 완전한 매개 역할을 하고 있었다(Berger et al., 2015; Manning et al., 2015; Xu et al., 2015; Jentkins et al., 2008). 부채는 낮은 심리적 기능에 영향을 미쳐 부채를 관리하는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이는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쳐 부채의 늪(trap)에서 빠져나오기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Lenton & Mosley, 2008).

하지만 과중채무가 '어떻게'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과정(mechanism)에 대해서는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부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과정을 객관적인 조건을 활용하여 살펴본 연구는 거의 부재하다. 본 연구는 과중채무가 우울 수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물질적 결핍'이 핵심에 있을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여 이전 연구와는 다른 차별성을 지닌다. 물질적 결핍이라는 개념은 과중채무로 인한 경제적 긴장(economic strain)을 여실히 보여주는 개념이라고 보았다. 본 연구는 물질적 결핍 개념을 사용하여 과중채무가 생활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생활 여건에서 과중채무의 영향력 또한 파악하고 있다. 즉, 과중채무가 물질적 결핍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과중채무가 우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물질적 결핍 수준이 그 과정의 핵심에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제 3 장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제 1 절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과중채무가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과중채무와 우울 수준의 관계를 물질적 결핍 수준이 매개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성한 연구모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모형

제 2 절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과중채무는 우울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1. 가계부실위험가구 해당 여부는 우울감 수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2] 과중채무는 물질적 결핍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2. 가계부실위험가구 해당 여부는 물질적 결핍 수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3] 과중채무와 우울감 수준 간 관계에서 물질적 결핍 수준이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연구가설 3. 물질적 결핍 수준이 가계부실위험가구 해당 여부와 우울감 수준 간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제 4 장 연구방법

제 1 절 분석자료와 연구대상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과중채무가 우울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과정을 물질적 결핍이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조사(KoWePS: Korea Welfare Panel Study)의 가장 최근 조사인 14차(2019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연령, 소득계층, 경제활동상태 등에 따른 다양한 인구 집단 별로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집행의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2006년에 시작한 패널조사이다.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차상위층(near poor)의 가구형태, 소득수준, 취업상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계층의 규모 및 생활실태 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함을 목적으로 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본 연구에서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첫째, 과중채무를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과중채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소득은 물론 금융 및 실물자산, 부채, 이자까지 조사한 자료가 필요하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주에게 소득, 자산, 가구의 부채 및 이자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소득, 부채, 자산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독립변수를 구성하기에 유용하다.

둘째, 연구자가 주목하는 우울감 수준과 물질적 결핍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정신건강 관련 문항에서 우울감 척도를 CESD-11을 활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물질적 결핍 수준을 경험여부를 음식, 필수재, 주거와 의료 영역의 11개 항목에서 생활여건 문항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

셋째, 전국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지님과 동시에 저소득층 연구에 적합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한국복지패널조사의 모집단은 전국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층화이중추출법(Stratified 2-stage Sampling)을 이용하여 대표성 있게 추출된다. 1단계에서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90% 자료로부터 517개 조사구(24,711가구)를 추출하여 조사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조사 자료로부터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를 각각 3,500가구씩 총 446개 조사구(7,000가구)를 최종 표본으로 추출하여 대표성을 유지한다. 그리고 3500가구는 중위소득 60%미만 저소득층에 할당된다. 본 연구는

전체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과중채무 가구를 조사한다는 점에서 한국복지패널조사가 제공하는 전국 거주 다양한 인구 집단 별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 전체 표본의 50%를 할당해서 조사했다는 점에서 과중채무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더욱 클 것이라고 예상되는 저소득층 가구가 연구대상에 더 포함되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전체 가구 집단으로 대상을 두는 것은 다른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과중채무가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을 더 명확히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닌다.

넷째, 응답가구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광범위한 사회과학 영역의 학자들이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차원적인 조사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한국복지패널, 2019), 소득, 자산, 부채뿐만 아니라 성별, 연령, 혼인상태 등과 같은 인구학적 정보와 교육수준, 고용지위와 같은 사회경제적 정보를 함께 조사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우울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과중채무의 영향력을 분석할 수 있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9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 총 표본가구 6,612가구 중에서 조사가 완료된 가구주 6,331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부채가 있는 가구와 부채가 없는 가구를 비교하기 위하여 모든 가구를 연구대상에 포함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18세 이상 성인으로, 가구 내 가구주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총 가구주 6,331명 가운데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변수인 우울감 수준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가구주와 부채액, 재산액, 가처분소득 변수에서 이상치를 지닌 가구주를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선별된 본 연구의 최종 연구대상자 수는 가구주 6,059명이다.

제 2 절 변수의 구성 및 측정

1. 종속변수: 우울감 수준

본 연구의 연구문제 1과 2의 종속변수는 우울감 수준이다. 우울증 진단 기준은 흥미나 즐거움의 뚜렷한 저하, 불면이나 과다수면, 피로나 활력의 상실, 무가치함 또는 죄책감, 반복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 등이 2주 이상 거의 매일 발견되는 것이다(권석만, 2013).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는 우울 수준을 조사 시점 최근 1주일을 기준으로 하여 CESD-11(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척도로 11개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조사의 문항 구성과 측정 방식을 사용하였다.

11개 문항에 대한 응답은 4점 등간 척도로 다음과 같이 측정되었다. ① 극히 드물다(일주일에 1일 미만), ② 가끔 있었다(일주일에 1~2일간), ③ 종종 있었다(일주일에 3~4일간), ④ 대부분 그랬다(일주일에 5일 이상).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CESD-11의 11개 문항을 모두 합한 후 20/11을 곱하여 0~60점의 범위를 가지도록 환산하였다. 질문 '㉯ 비교적 잘 지냈다.' 와 '㉦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에 대한 응답 점수는 역코딩하여 계산하였다. 원 척도의 기준에 따라 0~60점으로 환산된 합산 점수가 유력우울증(probable depression)의 절단점으로 많이 이용되는 16점을 초과할 경우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고(Kohout et al., 1993),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다고 보았다(한국복지패널, 2019).

<표 1> 종속변수의 문항 내용

변수명	문항 내용
우울감 수준	㉮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 비교적 잘 지냈다.
	㉰ 상당히 우울했다.
	㉱ 모든 일들이 힘겹게 느껴졌다.
	㉲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 마음이 슬펐다.
	㉩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2. 독립변수: 과중채무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는 부채에 대한 데이터를 파악하기 위해 부채 형태를 조사하며(<표 2> 참조), 본 연구는 과중채무 보유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가계부실위험지수(HDRI)를 주요 독립변수로 사용한다. 가계부실위험지수(HDRI)는 가계의 부실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로,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부실위험 평가와 관련한 기존 연구의 판정지표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고 부실위험가구의 이론적 정의에도 부합하는 판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한 지수다(한국은행, 2015). 기존의 판정지표들은 1) DSR, DTA와 같은 부채 상환부담, 2) 순(純)자산규모((자산-부채), 부채/자산, 부채/소득 등), 3) 재무 여력(financial margin), 4) 부채 대비 가계소비 등의 지표를 사용하여 부실위험가구를 판정해왔다.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는 자산대비 부채비율(DTA) 100%를 기준으로 100%를 초과하는 집단을 과부담부채가구로 보았고(박신아 외, 2020), 가계부채비(소득대비부채비율)를 지표로 사용하여 400%가 넘는 경우 우울감의 위험이 상당히 높아진 것을 확인한 선행연구도 존재한다(박정민 외, 2017). 이 가운데 가계부실위험가구(HDRI)를 사용하는 이유는 한국은행에서 만들어낸 지표이고, 가계의 부채 대비 소득과 자산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실위험지수(HDRI)는 아래의 산식을 활용해 계산되었다.

$$HDRI = (1 + (DSR - \alpha) \times (1 + (DTA - \beta))100$$

$$DSR = \frac{\text{원리금상환액}}{\text{가처분소득}},\ DTA = \frac{\text{부채총액}}{\text{자산총액}}$$

위 식에서 α는 DSR의 임계치를, β는 DTA 임계치를 의미하며, 한국은행(2015)에서 사용한 임계치인 0.4와 1을 각각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적용한 HDRI 산식은 DTA계산에 있어 한국은행(2015)에서 적용한 기준과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연구에서는 DTA 계산에 자산총액을 사용하였는데 한국은행(2015)에서는 자산총액이 아닌 자산평가액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산평가액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한국은행에서 자산평가액 산정을 위해 활용한 내부 기준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산식의 DSR 구성요소인 원리금상환액은 한국복지패널에서 '주택 관련 부채의 원금상환액', '주택 관련 부채의 이자지출', '기타 부채의 이자지출'을 조사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리금 상환액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DSR(원리금상환비율)은 가계가 처분 가능한 소득 중 부채 상환을 위해 지불해야 할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의 비중을 의미하므로 본 연구에서 분모가 되는 가처분소득이 0이하일 경우에는 결측 처리하였다. 산식의 DTA 구성요소인 자산총액은 한국복지패널의 총재산액을 산출하였으며, 부채총액은 금융기관 대출, 일반사채, 카드빚, 전세보증금, 외상

등과 같은 기타 부채를 모두 포함하여 산출하였다. 이와 같이 가계부실위험지수(HDRI)는 채무상환능력을 유량(flow)인 소득 측면과 저량(stock)인 자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어 과중채무를 가장 적합하게 측정한다고 보았다. HDRI는 개별 가구의 DSR과 DTA가 모두 각 임계치 수준일 때 100의 값을 나타내며, 동 지수가 100을 초과한 가구를 위험가구로 판정한다. 본 연구에서도 HDRI의 기준을 응용하여, 100을 초과한 집단을 부실위험가구 해당가구, 100을 초과하지 않은 집단을 부실위험가구 비해당가구로 분류하였다.

<표 2> 독립변수의 측정 내용

변수명	세부항목
부채 형태 (금액)	① 금융기관대출(회사대출, 마이너스통장 미상환금 포함) ② 일반사채 ③ 카드빚(현금서비스, 카드론, 대환대출 미상환금, 구입한 자동차 카드 할부) ④ 전세(임대)보증금(받은 돈) ⑤ 외상, (자동차 등) 할부 구입, 미리 탄 곗돈 ⑥ 기타 부채

<표 3> 부채(총부채) 세부항목

구분	세부항목
총부채	금융기관대출 + 일반사채 + 카드빚(현금서비스, 카드론, 대환대출 미상환금, 구입한 자동차 카드 할부) + 전세(임대)보증금(받은 돈) + 외상, (자동차 등) 할부 구입, 미리 탄 곗돈 + 기타 부채

<표 4> 독립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명		조작적 정의
과중 채무	가계부실 위험지수 (HDRI)	$\text{HDRI}=(1+(\text{DSR}-\alpha))\times(1+(\text{DTA}-\beta))\times 100$ $(\text{DSR}=\frac{\text{원리금상환액}}{\text{가처분소득}},\ \text{DTA}=\frac{\text{부채총액}}{\text{자산총액}})$ $\alpha=0.4,\ \beta=1$

3. 매개변수: 물질적 결핍 수준

본 연구의 매개변수는 물질적 결핍 수준이다. 물질적 결핍 수준에 대한 측정을 통해 가구 구성원이 기본 욕구(basic needs)를 충족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지를 파악할 것이다. 물질적 결핍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음식, 주거, 전기·수도·가스 등 생활 필수재, 건강·의료)에서 기본적인 욕구 충족(basic needs)을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물질적 결핍의 경험은 한국복지패널조사에 대한 '생활여건'에 대한 응답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는 물질적 결핍에 대해 과거 1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음식(food), 주거(housing), 전기·수도·가스 등 생활 필수재(utilities), 건강·의료(medical care)의 영역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경험을 측정, 제공하고 있다. 이상 4가지 영역에 대한 물질적 결핍의 내용은 본 연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기본적 욕구의 미충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해당 11가지 질문에 대하여 응답이 없을 경우 '무경험(0)' 했다고 보았으며, 1가지 경험이 있을 경우, 물질적 결핍을 '단일결핍(1)'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2가지 이상을 경험하였을 경우 '중복결핍(2)'을 경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본 욕구 충족에 대해 질문하는 4가지 영역과 세부 11가지 질문 항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표 5> 매개변수의 문항 내용

변수명		문항 내용
물질적 결핍	음식	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던 경험 ②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가 없었던 경험 ③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가 없어서 가구 내 성인들이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경험 ④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양보다 적게 먹은 경험 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배가 고픈데도 먹지 못한 경험
	주거	① 2달 이상 집세가 밀리거나 낼 수 없어 집을 옮긴 경험 ② 돈이 없어 겨울에 난방을 못한 경험
	생활 필수재	①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험 ② 세금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가 끊긴 경험

	건강 의료	① 돈이 없어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못 간 경험 ② 연속 3개월 이상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 급여자격을 정지당한 경험

4. 통제변수 : 사회적 요인, 개인적 요인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는 우울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환경 요인으로는 교육수준, (가처분)소득, 고용지위를 포함하였다. 교육수준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직접적이기보다는 소득, 사회적 관계, 의료접근성 등의 증가를 통한 간접적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건강행위를 선택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antz et al., 1998; Currie & Stabile, 2003). 교육 수준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우울 증상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므로(Craig & Van Natta, 1979) 중졸 이하(0)를 기준으로 고졸(1), 전문대졸 이상(1)으로 더미변수화하여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소득의 경우 생활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우울 증상을 가질 가능성이 크고, 저소득 개인의 우울감 수준은 높게 나타나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김문두 외, 2003; 강상경, 2008), 가처분소득의 자연로그값을 적용하여 통제하고자 한다. 고용지위 또한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경제활동인구집단에 있어서 고용상태에 따라 우울감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송이은 & 김진영, 2012). 이에 따라 상용직(0)을 기준으로 임시직, 일용직,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1), 고용주,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1),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1)로 더미변수화 하여 통제하고자 한다.

개인적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장애, 혼인상태, 만성질환을 포함하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감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많은 선행 연구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전체 연령대에서 여성의 우울감 수준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나므로(강상경, 2008), 성별을 여자(0), 남자(1)로 변수를 조작하여 통제하고자 한다. 연령의 경우 만나이로 계산하여 범주형 통제변수를 포함하였다. 장애는 사회적 차별 경험으로 인해 우울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므로(이현주 & 강상경, 2009) 비장애인(0), 장애인(1)로 통제한다. 혼인 상태는 우울감에 일관되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가족이 있는 경우 우울감 수준이 낮게 보고되기도 하나(허준수 & 유수현, 2002) 배우자가 있는 경우 우울감 수준이 높다고 분석되기도 한다(성준모, 2010). 이처럼 혼인상태는 우울감에 일관되지 않게 영향을 미치므로 유배우(0), 무배우(1)로 코딩하여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또한, 만성질환은 삶의 질과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므로 한국복지패널에서 4점 척도로 측정한 것을 본 연구에서는 6개월 이상 투병, 투약한 경우를 기준으로 비해당(0), 3개월 미만 투병, 투약(0), 3~6개월 투병, 투약(0), 6개월 이상 투병, 투약(1)으로 처리하여 통제하고자 한다.

변수의 정보를 요약한 내용은 다음 <표 6>와 같다.

<표 6> 변수의 종류 및 측정방법

구분		변수명	측정방법	비고	성격
종속 변수		우울감	CESD-11 기준	16점 이상시 우울증 의심	연속형
독립 변수		가계부실 위험지수 (HDRI)	HDRI=(1+(DSR-α)) *(1+(DTA-β))*100	DSR=$\frac{\text{원리금상환액}}{\text{가처분소득}}$, DTA=$\frac{\text{부채총액}}{\text{자산총액}}$	범주형
매개 변수		물질적 결핍	무경험(ref.), 단일결핍(1), 중복결핍(2)	음식, 주거, 생활 필수재, 건강·의료 영역별 물질적결핍 여부	범주형
통제 변수	사회적 요인	소득	가처분소득(연간, 만원)의 자연로그값		연속형
		교육수준	중졸 이하(ref.), 고졸(1), 전문대졸 이상(1)	졸업 기준의 최종학력	범주형, 더미변수 중졸 이하(ref.)
		고용상태	상용직(ref.), 임시직·일용직·자활근로·공공근로·노인일자리(1), 고용주·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1),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1)		범주형, 더미변수 상용직(ref.)
	개인적 요인	성별	여성(ref.), 남성		범주형
		연령	만 나이		연속형
		장애	비장애인(ref.), 장애인(1)		범주형
		결혼상태	유배우(ref.), 무(1)		범주형
		만성질환	비해당(ref.), 해당(1)		범주형

제 3 절 분석방법

본 연구는 과중채무가 우울감 수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물질적 결핍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국복지패널 14차 자료를 활용하며, IBM SPSS Statistics 25.0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양적 분석 방법을 시행한다.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는 기술통계 분석 단계로,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 변수의 빈도, 평균, 표준오차 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과중채무를 측정하기 위해 정의한 독립변수 가계부실위험가구 해당 여부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할 것이며, 우울감 수준, 물질적 결핍 수준 및 통제변수에 포함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의 일반적 특성도 파악할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연구가설 1을 확인하는 단계로, 가계부실위험지수(HDRI)로 산출된 가계부실위험가구 해당 여부에 따라 우울감 수준이 높아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가계부실위험가구 해당 여부와 우울감 수준의 관계에 있어서 OLS(Ordinary Least Squares) 추정방법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여 우울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계부실위험가구의 영향을 알아볼 것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가설 2를 확인하고자 독립변수인 가계부실위험가구 해당 여부가 매개변수 물질적 결핍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자 OLS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가계부실위험가구 해당 여부와 물질적 결핍 수준이 종속변수 우울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자 OLS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가계부실위험가구 해당 여부가 우울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물질적 결핍의 간접효과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ping) 분석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재표집 과정을 5,000번 반복하였다(Preacher & Hayes, 2004).

제 5 장 연구결과

제 1 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주요 변수의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인 과중채무 가구주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통제변수와 주요 변수인 가계부실위험가구에 대한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수의 빈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7>, <표 8>과 같다. 정규분포가 심하게 위배되어 왜도와 첨도가 수용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변수를 통계적으로 변환하여 정규분포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표 7> 주요 변수의 빈도분석

(n=6,059)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가계부실위험가구	비해당	5,894	97.3
	해당	165	2.7
물질적 결핍	없음	5,636	93.0
	단일결핍	260	4.3
	중복결핍	163	2.7
성별	남성	3,951	65.2
	여성	2,108	34.8
연령	20대	135	2.2
	30대	414	6.8
	40대	879	14.5
	50대	1,001	16.5
	60대	1,057	17.4
	70대 이상	2,573	42.5
교육수준	중졸이하	2,825	46.6
	고졸	1,636	27.0
	전문대졸이상	1,598	26.4
결혼상태	배우자 없음	2,688	44.4
	배우자 있음	3,371	55.6

고용상태	상용직	1,385	22.9
	임시직/일용직/공공근로/노인일자리	1,165	19.2
	고용주/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1,218	20.1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2,291	37.8
만성질환	없음	2,267	37.4
	있음	3,792	62.6
장애여부	없음	5,286	87.2
	있음	773	12.8

먼저 <표 7>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계부실위험가구의 경우 전체 응답자 6,059명 중 해당 집단에 속하는 가구주는 165명(2.7%)이고, 비해당 집단에 속하는 가구주는 5,894명(97.3%)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2.7%만이 가계부실위험가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적 결핍의 경우, 경험이 없는 가구주가 5,636명(93.0%)이었으며 단일결핍(1개)의 경우 260명(4.3%), 중복결핍(2개 이상)은 163명(2.7%)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별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남성은 3,951명(65.2%), 여성은 2,108명(34.8%)으로 나타나, 남성 가구주가 여성 가구주에 비해 1.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총 6개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20대 135명(22.2%), 30대 414명(6.8%), 40대 879명(14.5%), 50대 1,001명(16.5%), 60대 1,057명(17.4%), 70대 이상 2,573명(42.5%)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교육수준은 3개의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중졸 이하 2,825명(46.6%), 고졸 1,636명(27%), 전문대졸 이상 1,598명(26.4%)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3,371명(55.6%)으로 배우자가 없는 집단 2,688명(44.4%)보다 많게 나타났다. 고용상태의 경우,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집단이 2,291명(37.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상용직 집단이 1,385명(22.9%), 고용주/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가 1,218명(20.1%), 임시직/일용직/공공근로/노인일자리 1,165명(19.2%) 순이었다. 만성질환의 경우, 만성질환이 있는 집단이 3,792명(62.6%), 만성질환이 없는 집단이 2,267명(37.4%)으로 만성질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많게 나타났다. 장애여부의 경우, 장애가 없는 집단이 5,286명(87.2%)로 장애가 있는 집단 773명(12.8%)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n=6,059)

변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종속	우울감 수준	0	26	3.43	4.39	1.64	2.65

통제	가처분소득 (단위: 만원)	11	169,736	3,909.96	4,072.62	13.33	472.63
	(LN)	2.4	12.04	7.92	.86	-.15	-.07
	연령	20	97	63.34	16.36	-.37	-.83

<표 8>에 제시된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가처분소득의 경우 최소 11만원에서 최대 169,736만원으로, 평균값은 3,909.96만원, 표준편차는 4,072.62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의 경우 왜도와 첨도 모두 수용 임계치를 초과해 정규성을 심하게 위배하기 때문에 자연로그 변환을 통해 정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연령의 경우 최소 20세에서 최대 97세로, 평균값은 63세, 표준편차는 16세로 나타났다. 연령의 변수는 왜도와 첨도가 기준치보다 낮아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

종속변수를 살펴보면, 우울감 수준은 4점 척도로 이뤄진 11가지 문항에 대한 응답값의 총합으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소 0점에서 최대 26점으로 평균값은 3.43점, 표준편차는 4.39점으로 나타났다. 우울감 수준 변수는 왜도와 첨도가 기준치보다 낮아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

2. 가계부실위험가구 해당 여부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주된 설명변수로 사용되는 가계부실위험가구 해당 여부에 따라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 변수 값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 먼저, 비연속변수로 측정된 물질적 결핍 수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고용상태, 만성질환여부, 장애여부에서 과중채무에 따른 유의미한 빈도수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한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한편, 연속변수에 해당하는 가처분소득, 우울 수준의 경우 부실위험가구 해당 여부별로 유의미한 평균 값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했다.

먼저 성별과 가계부실위험가구 해당 여부의 교차분석 결과, 남녀 모두 비해당 가구주가 해당 가구주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χ^2=8.501, p<.01). 연령의 경우 50대 집단(47명)에서 해당 가구주의 수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70대 이상(36명), 60대(31명), 40대(30명), 30대(13명), 20대(8명) 집단 순이었다. 비해당 가구주의 수는 70대 이상 집단(2,537명)에서 가장 많았고 60대(2,026명), 50대(954명), 40대(849명), 30대(401명), 20대(127명) 순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χ^2=38.977, p<.001). 교육수준과 가계부실위험가구 해당 여부의 교차분석 결과, 해당 가구주는 중졸 이하 집단(68명)에서 가장 많았고, 그다

음으로 고졸 집단(65명), 전문대졸 이상 집단(32명) 순이었다. 비해당 가구주의 수는 중졸 이하 집단(2,757명)에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고졸 집단(1,571명), 전문대졸 이상 집단(1,566명) 순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χ^2=13.847, p<.01). 결혼 상태와 가계부실위험가구 해당 여부의 교차분석 결과, 해당 가구는 배우자가 있는 집단(122명)이 배우자가 없는 집단(43명)보다 많았다. 비해당 가구는 배우자가 없는 집단(3,328명)이 배우자가 있는 집단(2,566명)보다 많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χ^2=157.949, p<.001). 고용상태와 가계부실위험가구 해당 여부의 교차분석 결과, 해당 가구주의 수는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집단에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일용직/자활근로/공공근로/노인일자리 집단, 상용직 집단, 고용주/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집단 순이었다. 비해당 가구주의 수는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집단에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상용직집단, 고용주/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집단, 일용직/자활근로/공공근로/노일일자리 집단 순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χ^2=32.519, p<.001). 만성질환 여부와 가계부실위험가구 해당 여부의 교차분석 결과, 해당, 비해당 가구 모두 만성질환이 있는 집단이 만성질환이 없는 가구보다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장애 여부와 가계부실위험가구 해당 여부의 교차분석 결과, 해당 가구와 비해당 가구 모두 장애가 없는 집단이 장애가 있는 집단보다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물질적 결핍 수준과 가계부실위험가구의 교차분석 결과, 해당가구의 경우 경험 없음을 경험한 집단이 가장 많았고, 단일결핍(1개), 중복결핍(2개 이상) 경험 집단 순이었다. 비해당 가구의 경우 경험 없음이 가장 많았고, 단일결핍(1개), 중복 결핍(2개 이상) 순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χ^2=525.956, p<.001).

다음으로는 연속변수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들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t-검정을 통해 파악하였다. 가처분소득(t=5.977, p<.001)과 우울감 수준(t=-6.030, p<.001)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처분소득에 로그를 취한 값의 경우, 가계부실위험 비해당 가구 평균은 7.93만원으로, 해당 가구(7.53만원)보다 더 많았다. 우울감 수준은 비해당 가구 평균은 3.36으로, 해당 가구(5.46)보다 더 낮았다. 지금까지의 결과는 다음의 <표 9>에 정리하였다.

<표 9> 가계부실위험가구 해당 여부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6,059)

(단위: 명(%))

변수		비해당	해당	전체
전체		5,894(97.3)	165(2.7)	6,059(100.0)
성별	여성	2,033(34.5)	75(45.5)	2,108(34.8)
	남성	3,861(65.5)	90(54.5)	3,951(65.2)
	전체	5,894(100.0)	165(100.0)	6,059(100.0)
	χ^2=8.501**			
연령	20대	127(2.2)	8(4.8)	135(2.2)
	30대	401(6.8)	13(7.9)	414(6.8)
	40대	849(14.4)	30(18.2)	879(14.5)
	50대	954(16.2)	47(28.5)	1,001(16.5)
	60대	1,026(17.4)	31(18.8)	1,057(17.4)
	70대 이상	2,537(43.0)	36(21.8)	2,573(42.5)
	전체	5,894(100.0)	165(100.0)	6,059(100.0)
	χ^2=38.977***			
교육수준	중졸 이하	2,757(46.8)	68(41.2)	2,825(46.6)
	고졸	1,571(26.7)	65(39.4)	1,636(27.0)
	전문대졸 이상	1,566(26.6)	32(19.4)	1,598(26.4)
	전체	5,894(100.0)	165(100.0)	6,059(100.0)
	χ^2=13.847**			
결혼상태	배우자 없음	3,328(56.5)	43(26.1)	3,371(55.6)
	배우자 있음	2,566(43.5)	122(73.9)	2,688(44.4)
	전체	5,894(100.0)	165(100.0)	6,059(100.0)
	χ^2=60.111***			
고용상태	상용직	1,355(23.0)	30(18.2)	1,385(22.9)
	일용직/자활근로/공공근로/노인일자리	1,114(18.9)	51(30.9)	1,165(19.2)
	고용주/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1,208(20.5)	10(6.1)	1,218(20.1)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2,217(37.6)	74(44.8)	2,291(37.8)
	전체	5,894(100.0)	165(100.0)	6,059(100.0)
	χ^2=32.519***			

만성질환 여부	없음	2,196(37.3)	71(43.0)	2,267(37.4)
	있음	3,698(62.7)	94(57.0)	3,792(62.6)
	전체	5,894(100.0)	165(100.0)	6,059(100.0)
	χ^2=2.284			
장애 여부	없음	5,142(87.2)	144(87.3)	5,286(87.2)
	있음	752(12.8)	21(12.7)	773(12.8)
	전체	5,894(100.0)	165(100.0)	6,059(100.0)
	χ^2=0.000			
물질적결핍 수준	없음	5,555(94.2)	81(49.1)	5,636(93.0)
	단일결핍(1개)	216(3.7)	44(26.7)	260(4.3)
	중복결핍(2개 이상)	123(2.1)	40(24.2)	163(2.7)
	전체	5,894(100.0)	165(100.0)	6,059(100.0)
	χ^2=525.956***			
가처분소득	평균	3949.93	2482.12	3909.96
	표준편차	4108.39	2016.05	4072.62
	t =4.574***			
LN (가처분소득) (만원)	평균	7.93	7.53	7.92
	표준편차	.85	.84	.86
	t =5.977**			
우울감 수준	평균	3.36	5.46	3.43
	표준편차	4.34	5.51	4.40
	t =-6.030***			

* p< .05 ** p< .01 *** p< .001

제 2 절 가설 검증

본 연구는 과중채무가 우울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물질적 결핍 수준이 이를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과중채무, 즉 가계부실위험가구 해당 여부가 우울감 수준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에 대해서 통제변수를 포함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가계부실위험가구 해당 여부가 우울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물질적 결핍 수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첫 번째, 가계부실위험가구 해당 여부가 물질적 결핍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가계부실위험가구 해당 여부와 물질적 결핍 수준이 우울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가계부실위험가구 해당 여부가 우울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물질적 결핍 수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가 제안한 SPSS 프로세스 매크로를 통한 부트스트랩(Bootstrap)검증을 실시하였다(Preacher & Hayes, 2004). 또한, 회귀 분석 과정에서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은 만족하였다.

1. 과중채무가 우울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는 과중채무가 우울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수립한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으며, 이때 통제변수를 모두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1] 과중채무는 우울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1] 가계부실위험가구 해당 여부는 우울감 수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가계부실위험 해당 가구가 (가계부실위험 비해당 가구보다) 우울감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을 것이다.

[모형 1] 가계부실위험가구 해당 여부가 우울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 (1단계)

$$\hat{Y} = \beta_0 + \beta_1 D_1 + \beta_2 X_2 + \beta_3 D_3 + \beta_4 D_4 + \beta_5 D_5 + \beta_6 D_6 + \beta_7 D_7 + \beta_8 X_8 + \beta_9 D_9$$
$$\beta_{10} D_{10} + \beta_{11} D_{11} + \beta_{12} D_{12}$$

Y : 우울감 수준

D_1 : 성별 (1=남, 0=여)

X_2 : 연령

D_3 : (교육수준) 고졸 (0=중졸 이하, 1=해당)

D_4 : (교육수준) 전문대졸 이상 (0=중졸 이하, 1=해당)

D_5 : 결혼상태 (0=배우자 있음, 1=배우자 없음)

D_6 : (고용상태) 임시직 외 여부 (0=상용직, 1=해당)

D_7 : (고용상태) 자영업 외 여부 (0=상용직, 1=해당)

D_8 : (고용상태) 실업자 외 여부 (0=상용직, 1=해당)

D_9 : 만성질환 여부 (0=없음, 1= 있음)

D_{10} : 장애 여부 (0=없음, 1= 있음)

X_{11} : LN(가처분소득)

D_{12} : 가계부실위험가구 (0=비해당, 1=해당)

<표 10> 가계부실위험가구 해당 여부가 우울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

(n=6,059)

변수			모형 1			
			B	S.E	β	t
통제변수	성별(ref. 여)		-1.149	.160	-.125	-7.200***
	연령		.005	.005	.017	.892
	교육수준 (ref. 중졸이하)	고졸	-.217	.147	-.022	-1.471
		전문대졸 이상	-.247	.178	-.025	-1.388
	결혼상태 (ref. 배우자 있음)		-.357	.158	-.040	-2.257*
	고용상태 (ref. 상용직)	임시직 외	-.016	.178	-.001	-.091
		자영업 외	.232	.176	.021	1.319
		실업자 외	1.322	.193	.146	6.862***
	LN(가처분소득)		-.807	.092	-.157	-8.799***
	만성질환(ref. 없음)		.740	.130	.082	5.708***

	장애(ref. 없음)	.798	.156	.061	5.127***
독립변수	가계부실위험	1.551	.315	.057	4.923***
(상수항)		9.452	.835		11.324***
F		130.172***			
R^2		0.205			
수정된 R^2		0.204			

* p<.05, ** p<.01, *** p<.001

첫 번째 검증을 위해 <표 10>부터 살펴보면, 가계부실위험가구 해당 여부가 우울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모형 1]의 모형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30.172, p<.001). 모형의 수정된 R^2은 .204로 [모형 1]에 포함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우울감 수준 분산의 20.4%를 설명한다.

분석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계부실위험가구 해당 여부(B=1.551, p<.001)는 우울감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실위험가구에 해당하는 가구가 해당하지 않는 가구에 비해서 우울감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B=-1.149, p<.001), 결혼상태(B=-2.257, p<.05), LN(가처분소득)(B=-.807, p<.001)이 우울감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상태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B=1.322, p<.001), 만성질환(B=.740, p<.001), 장애(B=.798, p<.001)가 우울감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보다, 가처분소득이 높을수록 우울감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고용상태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가 고용상태 상용직에 비해 우울감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이 만성질환이 없는 사람보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가 없는 사람보다 우울감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교육수준, 연령은 우울감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 과중채무가 물질적 결핍 수준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는 과중채무가 물질적 결핍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수립한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으며, 이때 통제변수를 모두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1>에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2] 과중채무는 물질적 결핍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2] 가계부실위험가구 해당 여부는 물질적 결핍 수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가계부실위험 해당가구가 (가계부실위험 비해당가구보다) 물질적 결핍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을 것이다.

[모형 2] 가계부실위험가구 해당 여부가 물질적 결핍 수준에 미치는 영향

$$\hat{Y} = \beta_0 + \beta_1 D_1 + \beta_2 X_2 + \beta_3 D_3 + \beta_4 D_4 + \beta_5 D_5 + \beta_6 D_6 + \beta_7 D_7 + \beta_8 X_8 + \beta_9 D_9$$
$$\beta_{10} D_{10} + \beta_{11} D_{11} + \beta_{12} D_{12}$$

Y : 물질적 결핍 수준

D_1 : 성별 (1=남, 0=여)

X_2 : 연령

D_3 : (교육수준) 고졸 (0=중졸 이하, 1=해당)

D_4 : (교육수준) 전문대졸 이상 (0=중졸 이하, 1=해당)

D_5 : 결혼상태 (0=배우자 있음, 1=배우자 없음)

D_6 : (고용상태) 임시직 외 여부 (0=상용직, 1=해당)

D_7 : (고용상태) 자영업 외 여부 (0=상용직, 1=해당)

D_8 : (고용상태) 실업자 외 여부 (0=상용직, 1=해당)

D_9 : 만성질환 여부 (0=없음, 1= 있음)

D_{10} : 장애 여부 (0=없음, 1= 있음)

X_{11} : LN(가처분소득)

D_{12} : 가계부실위험가구 (0=비해당, 1=해당)

<표 11> 가계부실위험가구 해당 여부가 물질적 결핍 수준에 미치는 영향

(n=6,059)

변수			모형 2			
			B	S.E	β	t
통제변수	성별(ref. 여)		.040	.014	.051	2.803**
	연령		-.003	.000	-.126	-6.187***
	교육수준 (ref. 중졸이하)	고졸	-.010	.013	-.011	-.732
		전문대졸 이상	-.044	.016	-.052	-2.787**
	결혼상태 (ref. 배우자 있음)		-.029	.014	-.038	-2.039*

	고용상태 (ref. 상용직)	임시직 외	.038	.016	.040	2.392*
		자영업 외	.010	.016	.010	.614
		실업자 외	.101	.017	.130	5.858***
	LN(가처분소득)		-.069	.008	-.157	-8.407***
	만성질환(ref. 없음)		.004	.012	.005	.366
	장애(ref. 없음)		.020	.014	.018	1.436
독립변수	가계부실위험		.608	.028	.264	21.576***
(상수항)			.762	.075		10.200***
F			75.131***			
R^2			0.130			
수정된 R^2			0.128			

* p<.05, ** p<.01, *** p<.001

두 번째 검증을 위해 <표 11>을 살펴보면, 가계부실위험가구 해당 여부가 물질적 결핍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모형 2]의 모형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75.131, p<.001). 모형의 수정된 R^2은 .128로 [모형 2]에 포함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가 종속변수인 물질적 결핍 분산의 12.8%를 설명한다.

분석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계부실위험가구 해당 여부(B=.608, p<.001)는 물질적 결핍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실위험가구에 해당하는 가구가 해당하지 않는 가구에 비해서 물질적 결핍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연령(B=-.003, p<.001), 교육수준 전문대졸이상(B=-.044, p<.01), 결혼상태(B=-.029, p<.05), LN(가처분소득)(B=-.069, p<.001)이 물질적 결핍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B=.04, p<.01)과 고용상태 임시직/일용직/자활근로/공공근로/노인일자리(B=.038, p<.05), 고용상태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B=.101,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 전문대졸이상이 교육수준 중졸이하 보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보다, 가처분소득이 높을수록 물질적 결핍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고용상태가 임시직/일용직/자활근로/공공근로/노인일자리인 사람이 상용직보다, 고용상태가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인 사람이 상용직보다 물질적 결핍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교육수준, 만성질환 여부, 장애 여부는 물질적 결핍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3. 과중채무와 물질적 결핍 수준이 우울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

가계부실위험가구 해당 여부와 물질적 결핍 수준이 우울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통합모형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모형 3] 가계부실위험가구 해당 여부와 물질적 결핍 수준이 우울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

$$\hat{Y} = \beta_0 + \beta_1 D_1 + \beta_2 X_2 + \beta_3 D_3 + \beta_4 D_4 + \beta_5 D_5 + \beta_6 D_6 + \beta_7 D_7 + \beta_8 X_8 + \beta_9 D_9$$
$$\beta_{10} D_{10} + \beta_{11} D_{11} + \beta_{12} D_{12} + \beta_{13} X_{13}$$

Y : 우울감 수준

D_1 : 성별 (1=남, 0=여)

X_2 : 연령

D_3 : (교육수준) 고졸 (0=중졸 이하, 1=해당)

D_4 : (교육수준) 전문대졸 이상 (0=중졸 이하, 1=해당)

D_5 : 결혼상태 (0=배우자 있음, 1=배우자 없음)

D_6 : (고용상태) 임시직 외 여부 (0=상용직, 1=해당)

D_7 : (고용상태) 자영업 외 여부 (0=상용직, 1=해당)

D_8 : (고용상태) 실업자 외 여부 (0=상용직, 1=해당)

D_9 : 만성질환 여부 (0=없음, 1= 있음)

D_{10} : 장애 여부 (0=없음, 1= 있음)

X_{11} : LN(가처분소득)

D_{12} : 가계부실위험가구 (0=비해당, 1=해당)

X_{13} : 물질적 결핍 수준

<표 12> 가계부실위험가구 해당 여부와 물질적 결핍 수준이 우울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

(n=6,059)

변수			모형 3			
			B	S.E	β	t
통제변수	성별(ref. 여)		-1.218	.158	-.132	-7.721***
	연령		.010	.005	.036	1.866
	교육수준	고졸	-.200	.146	-.020	-1.374

	(ref. 중졸이하)	전문대졸 이상	-.170	.176	-.017	-.967
	결혼상태 (ref. 배우자 있음)		-.307	.156	-.035	-1.964
	고용상태 (ref. 상용직)	임시직 외	-.082	.176	-.007	-.467
		자영업 외	.215	.174	.020	1.239
		실업자 외	1.147	.191	.127	6.011***
	LN(가처분소득)		-.688	.091	-.134	-7.545***
	만성질환(ref. 없음)		.733	.128	.081	5.720***
	장애(ref. 없음)		.764	.154	.058	4.963***
독립변수	가계부실위험		.499	.323	.018	1.545
매개변수	물질적 결핍 수준		1.729	.142	.148	12.177***
(상수항)			8.135	.832		9.780***
F			134.492***			
R^2			0.224			
수정된 R^2			0.223			

* p<.05, ** p<.01, *** p<.001

수립한 회귀모형을 바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결과를 <표 12>에 제시하였다. 가계부실위험가구 해당 여부와 물질적 결핍 수준이 우울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모형 3]의 모형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34.492, p<.001). 모형의 수정된 R^2은 .223으로 [모형 2]에 포함된 독립변수, 매개변수, 통제변수가 종속변수인 우울감 수준 분산의 22.3%를 설명한다.

분석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계부실위험가구 해당 여부는 우울감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적 결핍 수준(B=1.729, p<.001)은 우울감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질적 결핍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감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B=-1.218, p<.001), LN(가처분소득)(B=-.688, p<.001)이 우울감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고용상태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B=1.147, p<.001), 만성질환 여부(B=.733, p<.001), 장애 여부(B=.764,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 가구주가 여성 가구주보다 우울감 수준이 낮고, 가처분소득이 높아질수록 우울감 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고용상태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가 고용상태 상용직 보다 우울감 수준이 높고,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이 만성질환이 없는 사람보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가 없는 사람보다 우울감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교육수준, 연령, 결혼 상태는 우울감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과중채무가 우울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물질적 결핍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3]은 물질적 결핍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3] 과중채무와 우울감 수준 간 관계에서 물질적 결핍 수준은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연구가설 3] 물질적 결핍 수준은 가계부실위험가구 해당 여부와 우울감 수준 간 관계에서 간접효과를 가질 것이다. 즉, 가계부실위험가구 해당 여부는 물질적 결핍 수준을 거쳐서 우울감 수준에 영향을 준다.

가계부실위험가구 해당 여부가 우울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물질적 결핍 수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를 통한 부트스트랩(bootstrap)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로 가는 회귀모형(<모형 2>)(F=75.131, p<.001)과 독립변수 및 매개변수가 종속변수로 가는 회귀모형(<모형 3>)(F=134.492,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로 가는 회귀모형은 13.0%(수정된 R^2은 .128), 독립변수 및 매개변수가 종속변수로 가는 회귀모형은 22.4%(수정된 R^2은 .223)로 나타났다.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987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모두 3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 검증 결과, 가계부실위험가구 해당 여부가 물질적 결핍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608, CI[.553, .664]. 즉, 가계부실위험 해당 가구가 비해당 가구에 비해 물질적 결핍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 검증 결과, 독립변수인 가계부실위험가구 해당 여부는 우울감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매개변수인 물질적 결핍 수준은 우울감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1.729, CI[1.451, 2.007]).

<표 13> 가계부실위험가구 해당 여부가 우울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서 물질적 결핍의 간접효과 검증 통합모형

(n=6,059)

경로			B	se	LLCI	ULCI
가계부실위험	→	물질적 결핍	0.608	0.028	0.553	0.664
가계부실위험	→	우울감 수준	0.499	0.323	-0.134	1.133
물질적 결핍	→	우울감 수준	1.729	0.142	1.451	2.007
효과			**B**	**se**	**LLCI**	**ULCI**
총효과			1.551	0.315	0.933	2.169
직접효과			0.499	0.323	-0.134	1.133
간접효과			1.052	0.163	0.762	1.396

제 6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현대의 발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채의 사용이 대중화된 흐름 속에서, '능력에 비해 과한 부채를 진 상태'를 뜻하는 과중채무 개념을 사용하여 과중채무가 개인의 정신적인 영역, 구체적으로 우울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무엇을 '매개하여' 이루어지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자본주의 경제를 살아가는 개인들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부채를 사용해왔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루어져 왔지만, 부채 사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의 흐름 속에서 부채가 개인의 삶의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탐구는 충분히 시도되지 못했다. 즉, 증가하고 있는 가계대출,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카드대출, 신조어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 '빚투(빚내서투자)' 등 미디어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넘쳐나지만, 부채가 미시적으로 개인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내적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빈약한 것이다. 한편, 부채를 사용하여 '부(富)'를 획득할 수 있다는 '동경'과 부채를 사용하여 연체, 부도, 신용불량, 개인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이 존재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개인들이 부채를 사용할 때 가장 취약한 집단이 누구인지에 대한 학술적 논의 역시 부족하며, 개인이 어쩔 수 없이 겪은 불행한 일들로 인해 발생한 부채의 책임이 오롯이 개인에게만 전가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과중채무는 우울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과중채무는 물질적 결핍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과중채무와 우울감 수준 간 관계에서 물질적 결핍은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이러한 세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가설을 설정하였으며, 한국복지패널 14차(2019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고 부트스트랩(bootstrap) 검증을 통하여 물질적 결핍의 완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가설의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중채무를 조작적으로 정의한 가계부실위험지수(HDRI)로 측정한 부실위험가구 해당여부가 우울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

는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부실위험가구 해당여부는 우울감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쳐 [연구가설 1]은 지지되었다. 즉, 부실위험 해당가구가 부실위험 비해당 가구에 비해 우울감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그 외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 결혼상태, 고용상태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LN(가처분소득), 만성질환여부, 장애여부가 우울감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과중채무가 물질적 결핍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가계부실위험지수(HDRI)로 측정된 부실위험가구 해당여부는 물질적 결핍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쳐 [연구가설 2]는 지지되었다. 즉, 부실위험 해당가구가 부실위험 비해당 가구에 비해 물질적 결핍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그 외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전문대졸 이상, 결혼상태, 고용상태 임시직/일용직/자활근로/공곤근로/노인일자리, 고용상태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LN(가처분소득이 물질적 결핍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과중채무와 물질적 결핍 수준이 우울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가계부실위험지수(HDRI)로 측정된 부실위험가구 해당여부는 우울감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물질적 결핍 수준은 우울감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그 외 통제변수 중에서는 성별, 고용상태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LN(가처분소득), 만성질환여부, 장애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넷째, 과중채무와 우울감 수준 간의 관계에서 물질적 결핍 수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Hayes가 제안한 부트스트랩(bootstrapping)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가계부실위험가구가 신뢰구간 안에 0을 포함하지 않아 가계부실위험가구 해당 여부와 우울감 수준 사이에서 물질적 결핍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로써 [연구가설 3]은 지지되었다. 과중채무가 우울감 수준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과중채무와 우울감 수준 간 관계를 물질적 결핍이 완전 매개하는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함의

본 연구는 과중채무가 우울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과정을 과연 물질적 결핍이 매개하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과중채무가 '어떻게' 우울감 수준에 미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mechanism)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1. 이론적 함의

부채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연구되고 있다. 한국에서 부채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주로 국가부채, 기업부채 위주로 경제, 경영학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가구의 부채와 관련해서는 소비자학에서 연구되어 왔다. 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인의 내적 수준에 대한 관련 연구와 논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선행연구들은 부채와 정신건강의 영역, 구체적으로 우울감, 자살생각, 삶의 만족도에 대한 관련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박정민 외, 2017; 이윤정 & 송인한, 2015; Berger et al., 2015; Naranjo et al., 2021; Tay et al., 2017). 본 연구는 부채의 하위수준에서 개념을 조작하여 '과중채무'라는 개념을 사용해 우울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봄과 동시에 과중채무가 우울감에 미치는 과정에서 현 시점까지 밝혀지지 않은 매개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가 갖는 첫 번째 의의는 '부채'라는 개념을 '과중채무'로 한정하고, 한국은행에서 개발한 지표를 접목하여 연구에 적용했다는 점이다. '과중채무(over-indebtedness)'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국내·외에 소수로 존재하며, 해당 연구들이 개인의 내적 수준과 연관하여(Betti, Gianni, et al, 2007; 박정민 & 탁장한, 2017) 살펴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과중채무의 영향력을 개인의 내적 수준에서 살펴봤다는 차별성을 지닌다.

이어서 본 연구가 갖는 두 번째 의의는 과중채무가 우울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우울감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어떠한 메커니즘(mechanism) 때문인지 '경로'를 이해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과중채무가 우울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물질적 결핍'의 경로를 매개하여 나타난다고 보았다. 분석 결과, 물질적 결핍 수준은 과중채무(가계부실위험지수)와 우울감 수준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고 있어 과중채무는 물질적 결핍 수준을 거쳐서 우울감 수준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유의해야 할 점은 분석 결과에서 살펴본 완전매개효과와 관련하여 과중채무의 직접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총효과의 일부는 과중채무와 관련이 있는데, 측정되지 않았거나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요인

등의 이유로 과중채무의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분석결과를 통해 과중채무와 우울감 수준 사이의 관계에서 물질적 결핍 수준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자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물질적 결핍'이라는 개념이 포괄하고 있는 내용이다. 물질적 결핍이 일상생활에서 기초적인 욕구 미충족 경험으로 측정하고 있는 것은 '음식', '주거', '생활필수재', '건강·의료' 영역이다. 달리 말하면, 우울감 수준에 있어 단순히 채무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과중채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결핍을 경험하고 제약을 겪는 것이 우울감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물질적 결핍이 고용, 주거, 건강, 사회적 관계 차원에서 영향을 미쳐 우울감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가 갖는 세 번째 의의는 Pearlin et al.(1981)의 '스트레스 과정 이론(Stress Process Model)'을 적용하여 과중채무와 과중채무가 야기한 물질적 결핍을 '스트레서(Stressor)'로 보았다는 점이다. 스트레스 과정 이론은 스트레스를 단일한 사건(event)이 아닌, 스트레스가 촉발되고 진행, 지속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이론이며,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연구는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들을 확인하는데 큰 기여를 해 왔다(Turner, 2010). 본 연구는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으로 과중채무와 이로 인한 물질적 결핍을 제시하였고, 분석 결과 우울감 수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사회적 요인으로서 과중채무와 물질적 결핍을 강조하며,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파악한 것이다. 또한, 개인이 본래 직면했던 스트레스가 확산(proliferation)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처음에는 경제적 영역에 제한되어 있던 스트레스가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심리적, 관계적 영역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개인에게 훨씬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Pearlin, 1990; Aneshensel, 2015).

본 연구가 갖는 네 번째 의의는 다수의 부채 관련 연구가 부채의 주관적 부담 수준을 측정하고, 1차 자료 위주로 설문조사를 하여 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면(이지혜 & 주소현, 2013; 김미린 & 홍은실, 2010; 김성숙, 2016), 본 연구는 2차 자료인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표본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복지패널 14차 자료(2019)는 국내에서 수행 중인 가구단위 패널조사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 패널조사로 대표성을 띠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는 과중채무의 상위 개념인 부채를 사회경제적 지위에 반영해야 한다는 논의를 확장하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개인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상대적인 결핍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 좌절, 수치심을 겪게 하며, 이것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열악한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Kondo et al., 2008; Dwyer et al., 2011; Michael et al.,

2012; Mathieu et al., 2016, Hobfoll, 2002; Pearlin, 2005).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교육수준, 소득, 종사상 지위 등으로 치환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과 개인이 속한 가구의 경제적 웰빙(financial well-being)을 충분히 대표하는 변수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부채, 경제적 어려움(economic hardship), 자산, 부(wealth) 등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 지표가 불평등과 관련되어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이해하는 데 매우 핵심적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표인 과중채무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으며, 이로써 소득과 같은 경제적 지표와 함께 부채 부담 수준을 사회경제적 지위로 고려하는 논의에 기여하는 의의를 지닌다. 과중채무는 가계의 실질적인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자산이나 소득에 대한 연구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며, 사회경제적 지위에 부채를 반영하는 것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더 세밀하고 적절하게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로써의 부채는 교육수준, 소득, 종사상 지위와는 다른 과정으로 개인의 다차원적인 삶의 영역에 주는 영향을 이해하게 하여, 개인의 우울감 수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정책적 함의

본 연구의 결과가 정책적 관점에서 제공하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사회복지의 새로운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금융복지'에 관심이 정책적, 실천적인 관점에서 증가해야함을 확인하였다. 부채 사용이 보편화, 대중화되었지만 부채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은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다중채무자(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에 속하는 취약차주 수는 2021년 1분기 말을 기준으로 전체 차주의 6.3%에 해당한다(한국은행, 2021).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정부지원 대출 상품들, 구체적으로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사잇돌 대출', '미소금융(취약계층 자립자금, 취업성공대출, 교육비지원대출)' 등을 통해 서민의 가계부채를 해결하고자 해왔다. 정부지원 대출상품은 안전하고 금리가 낮은 장점이 있으나, 여전히 '부채'라는 것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부채 사용 이전에 '부채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은 무엇이었는지, 부채 사용이 실질적이고 본질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부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부채비율이 급격히 축소되고 은행들이 가계부문의 대출로 눈을 돌려 가계대출을 확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와 같은 거시적인 흐름과 사회의 분위기에서 개인이 부채를 사용하는 것이 '학습'된 것은 아닌지, '권유'받은 것은 아닌지, 합리적이고 주체적으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부채를 둘러싼 거시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부채는 '꾸준히 벌고, 꾸준히 갚아야 하는' 성질을 지닌 것이라는 이해가 필수적이다. 금융복지는 부채 발생의 예방적 기능과 채무 문제 해결 및 재발 방지 기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적합한 복지 자원을 연계하고 사례를 관리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서울시복지재단, 2019).

둘째, 사회복지실천의 초기 과정인 사정(assessment) 단계에서 채무에 대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 클라이언트의 상황의 본질이 무엇이고, 문제 상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문제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태도가 어떠한지, 문제의 지속기간은 어떠한지, 개입 시 누구의 관여가 필요한지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 실천 개입의 계획 수립에 있어서(김혜란 외, 2013) 채무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클라이언트의 돈에 대한 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가 채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사회복지사들은 사정 및 개입 기법을 지니고 있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욕구를 파악하는데 관찰 과정에 있어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하는 상황, 요인

중 채무와 관련한 이슈는 없는지 금융 상황에 대한 민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정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채무와 관련한 문제를 발견하였다면, 사회복지사는 계획, 개입 단계에서 '중개자(broker)'로서 클라이언트를 금융복지상담센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은 기관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력자(helper)'로서 클라이언트가 실제로 일상 생활에서 채무와 관련하여 클라이언트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 기술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셋째,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다.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이란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이 마주하는 제도적 장벽을 해결하는 것을 망라하는 개념이다(Sherraden, 2013). 서울시복지재단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사회복지현장에서 금융취약계층과 맞닿아 있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금융복지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2016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2021). 사회복지대상자 다수가 '돈'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에게 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금융, 부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채무조정제도, 합리적인 지출관리방안, 금융사기, 채무 독촉 대응, 금융상식 등과 같은 정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사회복지전공생, 복지관실습생과 같은 예비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금융역량강화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도 2020년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경제야 안녕'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김포복지재단도 2018년 사회복지사,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연계로 금융강화교육을 실시하였다.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가장 일선에서 만나는 사회복지사의 금융 역량 강화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위기 파악이 용이해질 것이며, 복지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금융복지상담센터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 2020년 9월을 기준으로 전국 금융복지상담센터는 13곳이 존재한다. 충청남도, 충청북도에는 센터가 아예 없고, 원주의 센터는 생활자립지원센터에서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역할을 담당하며, 부산광역시도 부산광역자활센터가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주빌리은행, 2020). 이 중에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센터는 중앙센터를 포함하여 서울 내에 15개의 센터를 갖추고 있고, 센터 마다 2명의 금융복지상담관이 상주하여 재무상담, 복지연계, 공적 채무조정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을 제외하고는 채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전문 인력과 센터가 몹시 부족한 상황이다. 부채로 인한 고민이 있을 때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쉽게 접근 가능하고 이용문턱이 낮은 금융복지상담센터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다섯 번째, 금융복지상담사의 적극적 양성이 필요하다. 미국의 Maryland 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2008년부터 금융사회복지 이니셔티브(Financial Social Work Initiative)를 진행하고 있다. 취약계층에 주목하며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경제적 안정과 재정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사들을 준비시키고 있다. 취약계층의 금융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던 복지제도 및 채무조정지원제도에의 연계 등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개선을 위한 상담도 중요하지만, 취약계층의 돈을 대하는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상담도 동반되어야 한다. 금융취약계층의 경우 돈에 대한 태도, 돈과 관련한 마음가짐을 뜻하는 'Money Script'라는 개념에 있어서 (Klontz, Kahler, & Klontz, 2008) 충동구매(Impulsive Purchase), 강박구매(Compulsive Buying), 저장장애(Hoarding Disorder), 재정적 구원자(Financial Enabling) 등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클라이언트의 상황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상담서비스, 인지행동 치료 등이 실천 현장에서 적용되어야한다. 클라이언트가 돈을 주체적,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재정적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금융복지상담사의 양성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 취약계층부터 모든 개인에게 이르기까지의 건강한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과 이를 위한 도구(toolkit)가 필요하다. 금융역량강화는 비단 취약계층에게 한정되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잡해진 금융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필수적인 것이다.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은 취약한 소비자(vulnerable consumers)의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작업대출, 불법 다단계 등)로부터의 보호와 재정적 안정, 개인의 안녕을 위해 요구되는 능력인 것이다. 금융이해력 증진을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의 돈을 다루는 습관, 금융에 대한 지식에의 노출 등이 필요할 터인데, 이는 주로 가정에서 배우게 되는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에 가깝다. 용돈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소외된 어린이, 저소득층의 어린이는 학습을 위한 자원뿐만 아니라 학습의 기회까지도 없는 채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금융과 돈에 대한 지식은 공적인 교육 체계 안에서 반드시 교육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돈은 가치중립적인 자원임과 동시에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인 동기가 관여되는 부분이므로 감정과 심리적인 부분을 고려한 관점 또한 함께 교육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와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다. 예컨대 광주광역시의 광산구 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18년 '착한 가계부 교실'을 개최했으며, 시민 누구나 수강할 수 있었다. 강의에서는 '착한 가계부' 교재를 사용하여 교육을 진행하였는데, 이 외에 참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교육용 툴키트(toolkit)로는 미국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의 'Your money, your goals'와 같은 공신력 있는 도구가 있다면 교육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일곱 번째, 과중채무가 물질적 결핍을 매개하여 우울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사회복지실천 분야 이외에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사적, 공적 채무조정제도를 제공하는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같은 곳에서 물질적 결핍과 관련한 선별검사(screening)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뿐 아니라 과중채무자들의 생계, 건강, 주거, 가족/사회적 관계 차원에서 기본적 욕구의 결핍 수준이 월등히 높다는 결과를 고려하여(탁장한 & 박정민, 2017), 물질적 결핍 수준에 대한 선별 검사를 진행하여 채무 조정제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긴급 생계지원 및 정신건강 상담·증진 서비스 의뢰 및 연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을 위한 전반적인 사회의 금융의식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영국의 경우 금융포용을 위한 정책을 소비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Carbo, 2007) 대면 재무상담 서비스, 민사 법률 구조 서비스(civil legal aid services), 부채 상담(debt advice)이 중요한 사회통합 전략이 된 것을(Marron, 2013)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금리 대출 시장, 대부업체의 불법 사금융에 대응하는 금융 감독 당국의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어 비인간적인 추심 행위(빚 독촉 등)가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임은 물론이며, 불법 사금융을 사용하게 되기까지의 상황에 몰리게 된 개인의 '금융배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제 1금융권 은행에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 개인을 위해 정부에서는 정부지원 서민금융대출을 활성화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위주의 정부지원 정책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정부지원 서민금융대출과 더불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신협(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수협' 등의 활성화는 저소득, 저신용 개인의 금융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금융협동조합의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의 방향성은 금융배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최진배 & 권오혁, 2017). 또한, 대안신용평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중·저금리로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에게 대출 기회를 제공하는 '소셜벤처(Social Venture)' 크레파스, 사회적 자본을 조성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사회적 금융'을 실현하는 '사회연대은행' 등과 같은 대안적 기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그리고 금융서비스의 다양화와 혁신은 금융 소외 영역을 줄이는데 기여하여 금융포용 사회로의 도약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언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방향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 적용한 스트레스 과정이론은 스트레서(사건과 사건이 야기한 만성적 스트레스를 통칭)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중요한 매개효과로 사회적 자원(social support), 개인적 자원(mastery, self-esteem), 대처(positive comparisons, devaluation of money)를 제시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서와 우울감의 관계를 분석할 뿐, 사회적, 개인적 자원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는 과중채무와 그 상위 개념인 부채의 특성을 강조하고 과중채무가 우울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과중채무와 물질적 결핍이라는 객관적인 지표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개인의 우울감 수준을 조절하거나 매개할 수 있는 사회적, 개인적 자원을 파악할 때, 과중채무가 물질적 결핍 수준을 경유하여 우울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의미에 대한 논의는 풍성해질 것이다. 사회적, 개인적 자원을 확인함으로써 사회복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함의가 더 잘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단일 시점 자료인 한국복지패널 19차(2019) 데이터를 활용하여 횡단분석을 실시하였으므로 매개효과를 포함하여 인과성을 추정하는 것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부실위험지수(HDRI) 지표로 측정한 부실위험가구에 해당하는 것이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물질적 결핍 수준이 매개한다고 설명하였으나, 우울감 수준으로 인해 부실위험가구가 되는 역인과관계의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추후에 패널데이터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연구모형을 구성하여 보다 정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패널회귀분석(panel regression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여 2개년도 자료를 고정효과모형(two-period fixed-effects model)을 사용하여 일차차분 모형분석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개인의 내생성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과중채무와 우울감 수준 간의 관계를 물질적 결핍 수준이 매개한다는 것을 밝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방법인 다중회귀분석 방법은 주요 변수 간의 관계 및 영향력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물질적 결핍 수준이 과중채무와 우울감 수준 간의 관계를 매개할 때, 구체적으로 물질적 결핍이 고용, 주거, 건강, 사회적 관계의 차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우울감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관계를 구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물질적 결핍 수준과 우울감 수준 사이에 매개 변수를 추가하여 이중 매개모형을 구성하는 분석방법을 통해 경로를 더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부채 수준과 우울감 수준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과중채무지표로 가계부실위험지수(HDRI)를 사용하였는데, 비우량부채, 생계형부채와 같이 다른 특성을 가진 부채의 종류 혹은 용도와 관련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부채 보유 기간, 부채를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는 다중채무 여부 등 부채의 여러 특성에 따라 개인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가계부실위험지수 구성요소 중에 '총부채'에 주택관련 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택 관련 부채의 이자지출도 포함하고 있으나 주택관련 부채를 제외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관련 부채의 규모는 크고, 개인과 가구에게 필수적인 '의식주'에서 '주거'를 위해 필요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주택 관련 부채가 총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물론 주택 마련에 따른 과도한 부채 상황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존재하지만(양은모 & 배호중, 2020), 주택 관련 부채는 신용 등급에 따른 접근성의 차이가 있으며 투자와도 연관된다는 점에서 이질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택 관련 부채를 분리해서 살펴보는 것이 부채로 인한 영향력을 명확하게 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정신건강 중에서도 '우울감' 수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부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등과 같이 여러 변수를 통해 측정되고 파악될 수 있다. 부채를 상환해야한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규칙은 개인이 경제적 '주체'로서 지불능력을 지녀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불 능력을 지니지 못했을 때 개인은 압박과 부담 상황, 실패감(failure)을 느끼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주체적으로 책임을 지지 못했다는 것은 개인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처럼 부채는 개인의 통제감(mastery), 자아존중감과 영향이 깊으며, 각종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subjective well-being)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다룬 '우울감' 수준 이외에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개인의 삶에 있어서 부채의 영향력을 다각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부채의 특성을 더 세밀히 살피며, 부채가 낙인을 찍는(stigmatizing) 과정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부채와 불평등과 관련된 연구를 제언하고 싶다. 본 연구는 부채의 영향력을 개인의 내적인 수준에서 살펴봤으나, 부채를 거시적이고 구조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국내에서는 빈약한 상황이다. 미국의 1970년, 1980년, 2000년대의 청년 코호트를 분석했을 때, 사회적 계층에 따라 부채 부담이 불평등하게 나타났고 낮은 사회적 계층의 청년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무담보 부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oule, 2014). 학자금대출과 청년에게 확대된 각종 대출 정책은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보이지만, 실제로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년에게는 부채로

인한 부담감과 책임감만이 과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청년의 성인기로의 이행 과정(transition to adulthood)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혼과 출산, 집 구매로 이어지는 과정을 늦추는 요소다(Draut, 2006; Chiteji, 2008).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년층의 부채로의 '진입(entry)'을 강력하게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며(Houle, 2013), 국내에서 부모의 소득이 낮고 부모의 고용지위가 불안정하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박정민 외, 2018) 보여주듯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원이 자녀의 부채에도 불평등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세대 간 불평등이 부채를 통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고려하여 연구모형을 구축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강상경, 권태연. (2008). 사회경제적 지위가 우울수준에 미치는 영향의 생애주기별 차이에 대한 탐색적 고찰.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30**, 332-355.

_____. (2010). 우울이 자살을 예측하는가?: 우울과 자살태도 관계의 성별· 연령 차이. **사회복지연구, 41**(2), 67-99.

강시온, 한창근. (2018). 청년가구주의 자산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우울감의 매개효과 검증. **사회복지연구, 49**(4). 195-220.

권석만. (2013). **현대이상심리학**(2판). 서울: 학지사.

구서정, 박정민, 유가환, 송태민. (2019).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가계부채 온토롤지 개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63**, 5-34.

김미린, 홍은실. (2010). 가계재무관리자의 경제적 불안과 재무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28**(5), 113-129.

김시월, 조향숙, 김미리. (2015). 가계부채가 노인 소비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구. **소비문화연구, 18**(2), 21-38.

김영일, 진경희. (2018). 가계 채무불이행 위험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금융연구, 32**(2), 63-92.

김진영. (2009). 한국 성인 집단에서 연령과 우울의 관계. **보건과 사회과학, 26**(1), 89-113.

김태은, 양세정. (2018). 청년층의 부채상환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소비자학연구, 29**(6).

김성숙. (2011). 저소득층가계의 재무문제와 재무상담 수요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15**(2), 147-171.

김성숙. (2016). 재무스트레스 유발 사건이 비고령자 빈곤층의 재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금융소비자학회, 5**(2), 5-33.

김성훈, 우명숙. (2019). 학자금 대출 채무가 대학졸업자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여성 대학졸업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20**(2), 63-101.

김혜란, 공계순, 박현선. (2013). **사회복지실천론**. 파주: 나남.

김혜련, 강영호. (2006).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사망률 불평등: 1998 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의 사망추적 결과. **예방의학회지, 39**(2), 115-122.

노대명, 박창균, 박상금, 한솔희, 김솔휘 (2017). **근로빈곤층의 부채에 대한 질적 연구: 부채 발생과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17-40).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29496 에서 검색
마우리치 오 랏자라또. (2012). **부채인간**. 서울:메디치미디어
맹성준, 한창근. (2019). 가계부채가 가족갈등수준에 미치는 영향: 자산과 소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6**(1), 57-81.
박신아, 심혜원, 김강희, 하랑경. (2020). 청년가구의 부채부담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40**(4), 295-331.
박정민, 박호준, 오욱찬. (2017). 가계부채가 부부폭력의 위험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8**(4), 33-57.
_____, 노법래. (2017). 과중채무자의 유형화와 특성 분석: 개인채무자 지원제도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33**(4). 83-105.
_____, 신진욱, 김영. (2019). 불운한 생애사에 따른 과중채무 경험의 확률 추정 및 원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71**(2), 279-305.
_____, _____, 최승주, 홍석철. (2018). 채무조정제도 이용자들의 경제적 합리성과 경제적 성과. **한국경제학회, 66**(2), 87-118.
_____, 이기원, 하은솔. (2018). 청년 채무 보유의 관련요인: 부모 사회경제적 특성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학, 70**(4), 93-116.
_____, 오욱찬, 구서정. (2017). 가계부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우울감과 자살생각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9**(2), 171-190.
_____, 송태민. (2020). 소셜 빅데이터를 이용한 가계부채 트렌드 및 강신호와 미래신호의 탐색. **한국사회복지학, 72**(1), 35-61.
박종옥. (2016). **소비자의 금융채무연체와 불이행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배영목, 김상미. (2014). 가계 금융부채의 연령별 특성과 과제. **사회과학연구, 31**(1), 520-555.
배호중, 한창근. (2018). 학자금 대출과 혼인이행: 4 년제 대학 졸업 여학생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8**(1), 520-555.
백진영, 오명석. (2015). 꿈에 투자하세요-학자금대출을 통해 본 대학생의 신용과 부채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48**(2), 3-43.
성준모. (2010). 소득수준별 가구 경제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62**(1), 109-132.
손종칠, 최영주. (2015). 가구패널을 이용한 과다부채와 소비의 상관관계 분석. **한국경제학보, 22**(1). 133-144.
손지연 (2015). **취약계층의 소비자역량 향상방안: 금융소비자의 취약성을 중심으로**. (정책연구 15-24). 한국소비자원:

https://www.kca.go.kr/smartconsumer/sub.do?menukey=7301&mode=view&no=1001801753 에서 검색

손지연, 박주영. (2017).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폭력: 유형별 부채사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8**(4), 599-611.

송이은, 김진영. (2012). 고용지위와 우울의 관계: 소득과 사회심리적 자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2**(1), 228-259.

심영. (2018). 부채가계 금융채무불이행과 소비지출구조, **한국생활과학회지**, **27**(2), 143-164.

양은모, 배호중. (2020). 주택마련에 따른 과도한 부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40**(2), 518-555.

여유진. (2020). 물질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생애주기별·박탈영역별 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0**(2), 60-84.

원승연. (2015). 가계의 금융부채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정책**, **22**(3), 41-72.

이상록. (2011). 빈곤층의 물질적 궁핍, 실태와 영향요인 분석. **사회복지연구, 42**(3), 233-265.

이세미, 이지연. (2016). 청년의 부채부담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소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제9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2016**(9), 285-299.

이웅, 임란. (2014). 박탈경험과 불평등인식의 관계연구: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보건사회연구, 34**(4), 93-122.

이윤정, 송인한. (2015). 자살과 연관된 경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 부채와 자살생각.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3**(1), 58-82.

이장희, 박상애, 김승회. (2018). 학자금 대출이 삶의 관계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 **상업교육연구, 32**(6), 121-140.

이정원, 박현, 권오성. (2016). 부채상환부담 수준별 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제도와 경제, 10**(1), 85-102.

이지혜, 주소현. (2013). 대학생의 재무스트레스와 재무지식 및 재무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6**(4), 45-70.

임완주. (2016).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 의존비율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소비를 매개하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서울.

원승연. (2015). 가계의 금융부채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정책, 22**(3), 41-72.

유경원 (2009). **가계부채 문제에 관한 분석: 미시자료를 중심으로** (경제분석 제15

권 제4호). 한국은행: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6/view.do?nttId=157165&menuNo=200440&pageIndex=18 에서 검색

유소이, 박주영. (2014). 부채부담과 재무스트레스. **한국생활과학회지, 23**(1), 47-61.

조영무 (2015). **소득계층별 가계부채 진단: 저소득층 가계부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LGERI 리포트 2015-3-25호). LG경제연구원: http://www.kefplaza.com/labor/manage/econo_view.jsp?nodeid=289&idx=13464 에서 검색

조흥식, 김상균, 최일섭, 최성재, 김혜란, 이봉주, 구인회, 홍백의, 강상경, 안상훈. (2015). **사회복지개론(4판)**. 파주:나남.

전해숙, 강상경. (2013). 장애인의 우울궤적 관련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재활복지, 17**, 41-67.

최진배, 권오혁. (2017). 한국의 금융협동조합과 지역사회개발. **한국협동조합연구, 35**(1), 17-32.

최현자. (1996). 가계의 신규부채수요 결정요인과 부채이용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3), 59-73.

탁장한, 박정민. (2016). 과중채무자의 사회경제적 박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8**(2), 173-201.

통계청. (2018). **2017년 사회조사 결과.** 서울: 통계청

통계청. (2020). **2019년 일자리 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서울: 통계청

통계청. (2020).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서울: 통계청

한국은행. (2019).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_____. (2015). **2015년 금융안정보고서**.

_____. (2020). **2020년 금융안정보고서**.

_____. (2021.6). **2021년 금융안정보고서**.

홍성철, 김문두, 이상이. (2003). 사회계층이 자살 사망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14**(1), 249-271.

2. 국외문헌

Adams Troy, M. M. (2010). High-risk health and credit behavior among 18- to 25-year-old college students. *Jounr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56*(2), 101-108.

Adler, N. E., & Snibbe, A. C. (2003). The role of psychosocial processes in explaining the gradient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health.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2*(4), 119-123.

Aldana, S. G., & Liljenquist, W. (1998). Validity and reliability of a financial strain survey. *Journal of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9*(2), 11.

Amit, N., Ismail, R., Zumrah, A. R., Nizah, M. A. M., Muda, T. E. A. T., Meng, E. C. T., ... & Din, N. C. (2020). Relationship between debt and depression, anxiety, stress, or suicide ideation in Asia: a systematic review. *Frontiers in psychology, 11*.

Ando, A., & Modigliani, F. (1963).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Aggregate implications and test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3*(1), 55-84.

Aneshensel, C. S. (1992). Social stress: Theory and research. *Annual review of sociology, 18*(1), 15-38.

Aneshensel, C. S. (2015). Sociological inquiry into mental health: The legacy of Leonard I. Pearli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56*(2), 166-178.

Archuleta, Kristy L., Dale, Anita., Spann, Scott M. (2013). College students and financial distress: Exploring debt, financial satisfaction, and financial anxiety, *Journal of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4*(2), 50-62.

Berger, L. M., Collins, J. M., & Cuesta, L. (2016). Household debt and adult depressive symptom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37*(1), 42-57.

Betti, G., Dourmashkin, N., Rossi, M., & Yin, Y. P. (2007). Consumer over indebtedness in the EU: measurement and characteristics. *Journal of Economic Studies*.

Beverly, S. G. (2000). Using Measures of Material Hardship to Assess Well-Being. *Focus. 21*(2). 65-69.

Bramley, G., & Besemer, K. (2017). Financial inclusion, financial stress and debt. In Dermott, E., Main, G., Bramley, G., & Bailey, N. (Eds.)Poverty and

Social Exclusion in the UK: Vol. 2(pp. 267-284). Bristol, England: Policy Press.

Bridges, S., & Disney, R. (2010). Debt and depression. *Journal of health economics*, *29*(3), 388-403.

Brown, S., Taylor, K., & Price, S. W. (2005). Debt and distress: Evaluating the psychological cost of credit.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6*(5), 642-663.

Buckland, J. (2014). Structural Barriers, Financial Exclusion, and the Possibilities of Situated Learning for Financial Education. *New Directions for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141*, 15-24.

Bureau, C. F. P. (2015). *Your money, your goals: A financial empowerment toolkit for social services programs.* Washington DC: Author.

Carbo, S., Gardener, E. P., & Molyneux, P. (2005). Financial exclusion in Europe. *Public Money & Managerment*, *27*(1). 21-22.

Chan, K. L., Brownridge, D. A., Tiwari, A., Fong, D. Y., Leung, W. C., & Ho, P. C. (2011). Associating pregnancy with partner violence against Chinese wome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6*(7), 1478-1500.

Chiteji, N. S. (2007). To have and to hold: An analysis of young adult debt. *Young*, *60*.

Cooke, R., Barkham, M., Audin, K., Bradley, M., & Davy, J. (2004). Student debt and its relation to student mental health. *Journal of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28*(1), 53-66.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1). *Study of the Problem of Consumer Indebtedness: Statistical Aspects*(Contract No. B5-1000/00/000197). Retrieved from https://citeseerx.ist.psu.edu/viewdoc/download?doi=10.1.1.183.3320&rep=rep1&type=pdf

Conger, R. D., & Donnellan, M. B. (2007). An interactionist perspective on the socioeconomic context of human development. *Annu. Rev. Psychol., 58*, 175-199.

Conger, R. D., Ge, X., Elder Jr, G. H., Lorenz, F. O., & Simons, R. L. (1994). Economic stress, coercive family process, and developmental problems of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5*(2), 541-561.

Currie, J., & Stabile, M. (2003). Socioeconomic status and child health: why is the relationship stronger for older children?. *American Economic*

Review, 93(5), 1813-1823.

Danziger, S., & Rouse, C. E. (Eds.). (2008). *The price of independence: The economics of early adulthood*. New York, NY: Russell Sage Foundation.

Despard, M. R., Perantie, D., Taylor, S., Grinstein-Weiss, M., Friedline, T., & Raghavan, R. (2016). Student debt and hardship: Evidence from a large sample of low-and moderate-income household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70,* 8-18.

Dew, J. (2007). Two sides of the same coin? The differing roles of assets and consumer debt in marriage.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8*(1), 89-104.

Dew, J. (2008). *Marriage and finance. In Handbook of consumer finance research..* New York: Springer

Dew, J. & Yorgasn Jeremy. (2009). Economic pressure and marital conflict in retirement-ages couples. *Journal of Family Issues, 31*(2), 164-188.

Disney, R., Bridges, S., & Gathergood, J. (2008). Drivers of Over-indebtedness. Report to the UK Department for Business.

Dwyer, R. E., McCloud, L., & Hodson, R. (2011). Youth debt, mastery, and self-esteem: Class-stratified effects of indebtedness on self-concept. *Social Science Research*, *40*(3), 727-741.

_____, _____. (2012). Debt and graduation from American universities. *Social Forces*, *90*(4), 1133-1155.

Drentea, P., & Lavrakas, P. J. (2000). Over the limit: the association among health, race and debt. *Social science & medicine*, *50*(4), 517-529.

European Union. (2008). *Towards a common operational European definition of over-indebtedness*. Retrieved from http://www.oee.fr/files/study_overindebtedness_en.pdf

Falanga, A. (2015). *Over-indebtedness in the EU: from figures to expert opinions*. European Financial Inclusion Network. Retrieved from https://www.finance-watch.org/wp-content/uploads/2018/12/O-I-in-EU-Andrea-Falanga-2015.pdf

Ferretti, F., & Vandone, D. (2019). *Personal Debt in Europe: The EU Financial Market and Consumer Insolvency*.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Fitch, C., Hamilton, S., Bassett, P., & Davey, R.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debt and mental health: a systematic review. M*ental Health Review Journal. 16*(4).

Friedman, M. (1957). *The permanent income hypothesis. In A theory of the consumption functi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Gathergood, J. (2012). Debt and depression: causal links and social norm effects. *The Economic Journal*, *122*(563), 1094-1114.

Gilbert, P. (2001). Depression and stress: A biopsychosocial exploration of evolved functions and mechanisms. *Stress, 4*(2), 121-135.

_____. (2006). Evolution and depression: Issues and implications. *Psychological medicine, 36*(3), 287.

Grable E. John & So-hyun Joo. (2004). An exploratory framework of the determinants of financial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5,* 25-50.

Gloukoviezoff, G. (2007). From financial exclusion to overindebtedness: the paradox of difficulties for people on low incomes?. *In New frontiers in banking services,* Springer, Berlin, Heidelberg. 213-245.

Haas, O. J. (2006). *Overindebtedness in Germany.*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Retrieved from http://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emp/documents/publication/wcms_117963.pdf

Harrison, N., Agnew, S., & Serido, J. (2015). Attitudes to debt among indebted undergraduates: A cross-national exploratory factor analysi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46*, 62-73.

Hayes, T. A. (2000). Stigmatizing indebtedness: Implications for labeling theory. *Symbolic Interaction*, *23*(1), 29-46.

Hobfoll, S. E. (1989). Conservation of resources: A new attempt at conceptualizing stress. *American psychologist*, *44*(3), 513.

_____. (2002). Social and Psychological Resources and Adaptation,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6*(4), 307-324.

Hodson, R., & Dwyer, R. (2014). *Financial behavior, debt, and early life transitions.* Ohio: OH State University.

Houle, J. N. (2014). A generation indebted: Young adult debt across three cohorts. *Social Problems, 61*(3), 448-465.

_____. (2014). Disparities in debt: Parents' socioeconomic resources and young adult student loan debt. *Sociology of education, 87*(1), 53-69.

Hounkpatin, H. O., Wood, A. M., Brown, G. D., & Dunn, G. (2015). Why does income relate to depressive symptoms? Testing the income rank hypothesis longitudinally.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4*(2), 637-655.

Ian Domowitz & Robert L. Sartian. (2003). Determinants of the Consumer Bankruptcy Decision, *The Journal of Finance*, *54*(1), 403-420.

Jenkins, R., Bhugra, D., Bebbington, P., Brugha, T., Farrell, M., & Coid, J. (2008). Debt, income and mental disorder in the general population. *Psychological medicine*, *38*(10).

Johnson, E., & Sherraden, M. S. (2007). From financial literacy to financial capability among youth. *Journal of Sociology & Social Welfare, 34*, 119.

Kamenetz, A. (2006). *Generation debt: Why now is a terrible time to be young.* England: Penguin Books.

Keese, M. (2012). Who feels constrained by high debt burdens? Subjective vs. objective measures of household debt.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3*(1), 125-141.

Klontz, B. T., Britt, S. L., & Archuleta, K. L. (2015). Financial 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Cham, Switzerland: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_____. Kahler, R., Klontz, T. (2008). *Facilitating financial health: Tools for financial planners, coaches, and therapists.* Cincinnati, Ohio: Klontz, Kahler Institute.

_____. _____, & Mentzer, J. (2011). Money beliefs and financial behaviors: Development of the Klontz Money Script Inventory. *Journal of Financial Therapy, 2*(1), 1-22.

Kohout, F. J., Berkman, L. F., Evans, D. A., & Cornoni-Huntley, J. (1993). Two shorter forms of the CES-D depression symptoms index. *Journal of aging and health*, *5*(2), 179-193.

Kondo, N., Kawachi, I., Subramanian, S. V., Takeda, Y., & Yamagata, Z. (2008). Do social comparisons explain the association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health?: Relative deprivation and perceived health among male and female Japanese individuals. *Social science & medicine*, *67*(6), 982-987.

Krause, N., Jay, G., & Liang, J. (1991). Financial strai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the American and Japanese elderly. *Psychology and*

aging, 6(2), 170.

Kroenke, C. (2008). Socioeconomic status and health: Youth development and neomaterialist and psychosocial mechanisms. *Social science & medicine*, *66*(1), 31-42.

Krumer-Nevo, M., Gorodzeisky, A., & Saar-Heiman, Y. (2017). Debt, poverty, and financial exclusion. *Journal of Social Work*, *17*(5), 511-530.

Lenton, P. & Mosley, P. (2008). *Debt and health,* University of Sheffield.

Lorant, V., Deliège, D., Eaton, W., Robert, A., Philippot, P., & Ansseau, M. (2003).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depression: a meta-analysis.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57*(2), 98-112.

Marron, D. (2013). Governing poverty in a neoliberal age: New Labour and the case of financial exclusion, *New Political Economy, 18*(6), 785-810.

Mayer, S. E., & Jencks, C. (1989). Poverty and the distribution of material hardship. *Journal of Human resources*, *24*(1) 88-114.

Mathieu R. Despard, Dana Perantie, Samuel Taylor, Michal Grinstein-Weiss, Terri Friedline, Ramesh Raghavan. (2016). Student debt and hardship: Evidence from a large sample of low- and moderate-income household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70*, 8-18.

Michael Nau, Rachel E. Dwyer, & Randy Hodson. (2015). Can't afford a baby? Debt and young Americans.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42, 114-122.

Mirowsky, John & Catherine Ross. (1986). Social Patterns of Distress. *Annual Review of Sociology, 12,* 23-45.

Naranjo, D. E., Glass, J. E., & Williams, E. C. (2021). Persons with debt burden are more likely to report suicide attempt than those without: a national study of US adults. *The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82*(3).

Nesse, R. M. (2000). Is depression an adapta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7*(1), 14-20.

OECD. (2014). Education at a Glance.

Oksanen, A., Aaltonen, M., & Rantala, K. (2015). Social determinants of debt problems in a Nordic welfare state: A Finnish register-based study. *Journal of consumer policy, 38*(3), 229-246.

Ouellette, T., Burstein, N., Long, D., & Beecroft, E. (2004). Measures of material hardship: Final Report. Prepared for: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Pearlin, L. I., & Kaplan, H. B. (1983). Role strains and personal stress. *Psychosocial stress: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3-32.

_____, Menaghan, E. G., Lieberman, M. A., & Mullan, J. T. (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37-356.

_____, Schieman, S., Fazio, E. M., & Meersman, S. C. (2005). Stress, health, and the life course: Some conceptual perspectiv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6*(2), 205-219.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4), 717-731.

Randy Hodson & Rachel E. Dewyer. (2014). Financial Behavior, Debt, and Early Life Transitions: Insights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Final Report for the Naiontal Endowment for Financial Education.*

Rachel E. Dwyer, Laura McCloud, & Randy Hodson. (2011). Youth debt, mastery, and self-esteem: Class-stratified effects of indebtedness on self-concept, *Social Science Research, 40,* 727-741

Reading, R., & Reynolds, S. (2001). Debt, social disadvantage and maternal depression. *Social science & medicine*, *53*(4), 441-453.

Ringen, S. (1988). Direct and indirect measures of poverty, *Journal of Social Policy*, *17*(3), 51 - 366.

Ross, Catherine E. & Joan Huber. (1985). Hardship and Depress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6,* 312-327.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

Sherraden, M. S. (2010). Financial capability: What is it, and how can it be created?. In J.M. Birkenmaier, M. S. Sherraden, & J. C. Curley, J. (Eds.), Financial Capability and asset building: Research, Education, Policy and Practice (pp. 1-43). New York &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herraden, M. S., Huang, J., Frey, J. J., Birkenmaier, J., Callahan, C., Clancy, M. M., & Sherraden, M. (2015). Financial capability and asset building for all. *American Academy of Social Work and Social Welfare*, *13,* 1-29.

Sullivan, T. A. (2012). Debt and the simulation of social class. *A debtor world:*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on debt,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Sun, A. R., & Houle, J. N. (2020). Trajectories of unsecured debt across the life course and mental health at midlife. *Society and mental health, 10*(1), 61-79.

Swartz, T. T. (2008). Family capital and the invisible transfer of privilege: Intergenerational support and social class in early adulthood.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19*, 11-24.

Sweet, Elizabeth. (2018). "Like you failed at life": Debt, health and neoliberal subjectivity. *Social Science & Medicine*, *212*, 86-93.

Tay, L., Batz, C., Parrigon, S., & Kuykendall, L. (2017). Debt and subjective well-being: The other side of the income-happiness coin.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8*(3), 903-937.

Taylor, M. (2011). Measuring financial capability and its determinants using survey data.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2*(2), 297-314.

Taylor, S. E., Repetti, R. L., & Seeman, T. (1997). Health psychology: what is an unhealthy environment and how does it get under the ski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8*(1), 411-447.

Turner, J. C. (2010). *Social categorization and the self-concept: A social cognitive theory of group behavior*. New York, NY, US: Psychology Press.

UK 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2008). *Drivers of Over-indebtedness.* Retrieved from https://citeseerx.ist.psu.edu/viewdoc/download?doi=10.1.1.514.9586&rep=rep1&type=pdf

Voydanoff, P. (1984). Economic distress and families: Policy issues. *Journal of Family Issues*, *5*(2), 273-288.

Walsemann, K. M., Gee, G. C., & Gentile, D. (2015). Sick of our loans: Student borrowing and the mental health of young adults in the United States. *Social Science & Medicine*, *124*, 85-93.

Williams, B. (2004). *Debt for sale: A social history of the credit trap.*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Zhang, J. & Kemp, S. (2009). The relationships between student debt and motivation, happiness, and academic achievement. *New Zealand Journal of psyhology, 38*(2), 24-29.

3. 기타

주빌리은행[웹사이트]. (2021.10.31). URL: http://www.jubileebank.kr/rolling-jubilee/notice?uid=1790&mod=document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2019, 09). 2019년 사회복지 전공생을 위한 금융역량강화 교육.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역량강화 교육 자료, 서울.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Over-indebtedness, Material hardships, and Depressive Symptoms

Yewon, IM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the use of debt is being popularized, this study attempted to understand the mechanism of how over-indebtedness, a state of excessive debt compared to the repayment ability, affects the level of depression by examining whether over-indebtedness affects an individual's level of depression and whether material hardship mediates this process.

Today, it has become common for individuals and households to use debt. The news that the total amount of household debt continues to increase has been frequently reported through the media, but how the household debt psychologically affects individuals at a micro level has not been empirically studied. There have been few attempts to verify whether debt actually improves the quality of life of individuals. Household debt can be a serious risk factor that erodes life for those with low income and assets, specifically the working poor, the elderly, small business owners, multiple debtors, and low-income households. These are vulnerable groups exposed to difficulties caused by debt. This study considers debt a 'double-edged sword' that can temporarily provide large sums of money to individuals, but on the other hand, negatively affect individuals psychologically through a sense of failure and stigma (Tay et al.,

2017).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d on 'over-indebtedness', a sub-concept of debt, the situation not being able to fulfill the obligation to repay the debt even if the living standard becomes lower. This study applied Pearlin's (1981) stress process model to understand over-indebtedness as a stressoron the assumption that the event of over-indebtedness and the resulting economic difficulties negatively affect the level of individual depression.

The research questions to be verifi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does over-indebtedness affect the level of depression? Second, does over-indebtedness affect the level of material hardship? Lastly, does the level of material hardship have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ver-indebtedness and depression level?

In order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the 14th dataset (2019) of the Korean Welfare Panel was used. The study targeted 6,059 adult household owners aged 18 or older who had no missing values and outliers in major variables. Controlling for personal and socioeconomic variables, the study verified whether over-indebtedness affected the level of depression through material hardship. The study classified the households at risk of insolvency from households not being at risk of insolvency using the Bank of Korea's Household Default Risk Index (HDRI). In the case of data analysis, OL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and bootstrapping analysis methods were used to confirm the indirect effect of material hardship.

For the main findings first, over-indebtedness (being risk of insolvency household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level of depression. In other words, households at risk of insolvency have a higher level of depression than households not being at risk of insolvency. Next, over-indebtedness (being risk of insolvency household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level of material hardship. This means that households at risk of insolvency have a higher level of material hardship than households not being at risk of insolvency. Finally, it was verified that material hardship fully mediates between over-indebtedness(being risk of insolvency households) and depression level. In detail, the direct effec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ver-indebtedness and depression level,

and material hardship completely mediated the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 stress process theory, these results support that the economic burden (material hardship) caused by life events (over-indebtedness) leads to enduring strains, which raise depress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material hardship is a factor that causes depre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ver-indebtedness and depression level. However, what should be noted here is the meaning that material hardship encompasses. Material hardship means that basic needs (in domains of 'food', 'housing', 'life essentials', and 'health care') cannot be met in daily life due to economic difficulties. In other words, in terms of the level of depression, experiencing hardship and restrictions in daily life due to over-indebtedness is a major cause of depression rather than simply being a problem with debt itself. This further suggests that material hardship can affect the level of depression by affecting domains such as employment, housing, health, and social relationships. Therefore, it is suggested for the subsequent studies to specifically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 hardship and the dimension of employment, housing, health, and social relationships, which can affect the level of depression by constructing dual mediation model.

Furthermore, this study also provides a few theoretical implications. First, while research on debt has mainly focused on national and corporate debt and there has been a lack of discussion on individuals suffering from debt, this study limits the concept of debt to over-indebtedness and examines the influence of over-indebtedness at the individual's internal level. Second, this study tried not only to confirm the effect of over-indebtedness on the level of depression, but also to understand the 'path' of the mechanism that causes depression. Third, by adopting the stress process model of Pearlin's (1981), the study emphasized the over-indebtedness and material hardship caused by over-indebtedness as social factors affecting the level of depression. Fourth, it is significant that it has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sample since it used the data of the Korean Welfare Panel, which is the secondary data, not the survey of the primary data. The dataset from the Korean Welfare Panel is representative as it is the second largest panel survey among household panel surveys that have been conducted in Korea. Finally, this study provides a basis for expanding the discussion that debt, the higher concept of over-indebtedness,

should be reflected in socioeconomic status. As over-indebtedness plays a role in reducing households' actual disposable income, a different approach from research on assets or income is required, and reflecting debt in socioeconomic status is a more detailed and appropriate understanding of an individual's socioeconomic status.

The results of this study also have the following both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First, the study showed that interest in 'financial welfare', a new issue of social welfare, should be increased from politic and practical point of view. Social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consider what was the situation in which 'having no choice but to use debt' before the use of debt, and whether the use of debt could actually and essentially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individuals. Second, it is necessary to collect data regarding debt during the assessment process of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orkers who meet clients with various social and personal problems in the field need to increase their sensitivity to the financial situation to identify whether there is any debt-related issue in the situations and factors that continuously raise the problem. To this end, third, education on strengthening financial capabilities for social workers is needed. By strengthening the financial capabilities of social workers who meet clients at the forefront of the field, it will be easier to identify clients' crises and to link welfare resources more efficiently. Fourth, it is necessary to both expand the infrastructure of the Financial Welfare Counseling Center, and actively cultivate financial welfare counselors. Fifth, education for healthy financial life from the vulnerable to all individuals and toolkits for the education are required. Sixth, in addition to the field of social work practice, the study suggests that screening related to material hardship is necessary in organizations such as the Credit Counseling and Recovery Service and th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which provide private and public debt relief programs to over-indebtors. Finally, it is emphasized that there is a need to prepare a system to support the overall financial consciousness of society for financial inclusion.

keywords : Household debt, Over-indebtedness, Material hardship, Depression, Stress process theory, Mediating effect, Indirect effect, Bootstrapping

Student Number : 2019-24997